

청하 이무상사



뉴스잡지 110호



SM '행복한 요기' 콜렉션 데뷔!

새 천년을 맞아 스승님께서 이 세상에 우아하고 멋진 선물들을 내놓으셨다. 행복한 요기 SM 캐주얼웨어 콜렉션이 바로 그것!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제 모든 행복한 요기들은 남성용과 남녀공용 겨울 콜렉션을 만날 수 있다! '행복한 요기'는 바로 여러분!

행복한 요기 SM 캐주얼웨어 시리즈:

여성용 100% 순면 브라우스:

색상은 자주, 주황, 흰색, 녹색 네 가지. V자 목선에 두 개의 가슴 주머니가 달린 이 상의는 꽃무늬 천이 배합되어 있어 한층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느낌이다. 이 순면 브라우스에는 같은 꽃무늬 천으로 만든 바지가 제격. 이 한 벌의 여성 의류는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매력적이다. 화사한 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옷이다.

여성용 100% 순면 바지:

꽃무늬 천으로 제작. 허리는 밴드를 대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색상은 자주, 주황, 청색, 녹색 네 가지.



남성용 100% 순면 긴 팔 셔츠:

연보라, 연주황, 흰색, 녹색, 이렇게 네 가지 밝은 색상이 준비되어 있다. 편안하고 촉감이 부드러운 이 상의는 어떤 형태의 바지와도 잘 어울려 활동적이고도 멋진 모습을 연출한다.





남성용 바지:

단순하면서도 품위 있는 순면 바지. 원단이 곱고 섬세하며, 주름방지처리가 되어 있다. 색상은 밝고 깔끔한 5가지 색상—흰색, 카키색, 연갈색, 회녹색, 곤색—이 나와 있으며, 디자인은 보통주머니가 달린 것과 겹주머니가 달린 것, 반바지 형태의 것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남녀 공용 겨울 시리즈:

한 벌 짜리 상의. 양면재단, 직물가공처리를 했다. 가볍고도 따스하며, 세탁이 용이하고, 어떤 체형에도 잘 맞는다. 색상은 연보라, 흰색, 빨강, 노랑, 녹색, 감청색, 곤색, 베이지, 이렇게 여덟 가지. 화사하고 생기 있는 색상이다. 종류는 주머니와 모자가 달린 긴 팔 상의와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이칼라가 달린 긴 팔 상의, 이렇게 세 종류다. 이 옷들은 남녀 모두를 위해 편안하고 활동적으로 제작되었다.



주문을 하시려면 SM 천의회사

886-2-87910860으로

전화해 주세요.

스승님의 부채 '은하수'

평 슈주 사저/ 포모사 타오웬

스승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승님의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운 화풍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스승님의 화풍은 세속적인 한계를 초월한다. 특히 스승님의 부채 위에 그려진 그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초추상파(超抽象派)' 작품이다. 스승님의 작품 안에 담겨진 깊고 깊은 의미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

어느 날 나는 이 그림들을 다시 감상하다가 부채 '은하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그건 바로 내가 입문하기 전에 꿈에서 이 부채그림이 묘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 때 나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은하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노랫가락이 흘러나와 내 귀에 울려 퍼졌다. '은하수의 노래(A Song in the Milky Way)'였다. 나는 그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음성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청아했다. 꿈에서 깨었을 때 나는 심신이 아주 상쾌한 느낌이 었다. 나는 부채를 집어들고 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그 놀라운 순간을 맛보려 했다. 그 순간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내게 그 은하수를 다시 보여주셨다. 단지 몇 번의 붓놀림으로! 스승님, 당신의 그림 속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속에 내 모습은 없어도 영원토록 그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차례

02 핫뉴스

칭하이 무상사 2000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순회강연/
인터넷을 통한 신과의 직접 교신/ 온라인 SMCH 서점/
영적인 삶의 지혜 나누기—포모사 '정신서점' 개업—

04 스승님 말씀

우주 네트워크

05 지혜어록

지식과 지혜

06/ 15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최신 오디오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07 다채로운 이벤트

서아프리카 토고·베닌/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멕시코/
독일/ 한국/ 캐나다/ 네팔/ 호주/ 포모사

14 매체보도

포모사 (대만일보)

16 특별대담

관음법문—신의 '말씀'을 따라 근원으로 돌아가자

25 신기한 감응

우리 아버지/ 휠체어여, 안녕/ 스승님의 향기

29 스포트라이트

연장자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노인은 집안의 보배/
조부모님과 나

31 스승님의 농담

장수의 비결

31 전 세계 채식식당

32 유용한 정보

스승님의 건강 비결/ 칠십대 노인의 건강 비결

33 건강 소식

녹차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 있다

34 관음가족

인생은 칠십부터/ 열렬한 사랑

35 시청자 편지

당신의 TV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스승님이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셨어요

36 감로법어

37 사랑의 실천

신년축하 전사회에서 불우이웃에게 스승님의 선물을 전하다/



완전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완전하게
보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중부 어울락 수해 구호활동/ 2000년 1월과 2월에 포모사에서
진행된 자선활동과 구호활동 내역

40 시

님

41 전 세계 관음 웹사이트

42 전 세계 연락처

안 표지 무상예술

스승님의 부채 '은하수'

바깥 표지

SM '행복한 요기' 콜렉션 데뷔/

천년의 아름다움—

칭하이 무상사는 당신의 최신작, 제 10세대 천상의 보석 '천
년의 아름다움'을 통해 다시 한 번 인류의 빛나는 새 시대의
표상을 그리셨다. 새 천년에는 '삼계의 왕' 세력권에서 벗어
나 생사를 해탈하고 '스승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강력한 사랑, '우주를 품은 빛'을 따
르며 '생명의 태양' 본질을 체험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성인
의 지위를 획득하여 '천년연화' 위로 날아올랐고, '창조의 무
지개'가 내리는 은총의 비를 맞으며 '낙원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 영원한 신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10호

출판일자 : 2000. 5. 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林 氷 心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새 천년 첫 봄의 희소식

칭하이 무상사 2000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순회강연

진리를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고자, 칭하이 무상사는 여러 해 동안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최고의 명상법인 관음법문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 스승님은 성스러운 강연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신성한 신의 왕국을 체험하고 윤회에서 영원히 해탈하는 여정에 오르게 하였다.



1999년 유럽강연과 중동 및 남아프리카 순회강연에 이어 또다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순회강연이 새 천년 첫 봄에 열리게 되었다. 스승님은 이로써 수많은 중생들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강연에 참석하여 무료로 관음법문에 입문할 수 있다. 모든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칭하이 무상사 2000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순회강연 일정

뉴질랜드 오클랜드

4월 27일 저녁 7시

연락처: 64-9-4839454, 64-9-4194470,

64-25-2219910

E-mail: shale@ihug.co.nz, nzwisdom@yahoo.com

스리랑카 콜롬비아

4월 29일 오후 4시

연락처: 94-72-262164

E-mail: chrishanth.fernando@expeditors.com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

4월 30일 저녁 6시 30분

연락처: 60-3-9873904, 60-13-3594730

E-mail: klschm@tm.net.my

네팔 카트만두

5월 1일 저녁 5시 30분

연락처: 977-1-473558/977-1-416981

E-mail: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홍콩

5월 2일 저녁 7시

연락처: 852-27495534

E-mail: joyandlove@hongkong.com

필리핀 마닐라

5월 3일 저녁 7시

연락처: 632-4103955(카갈로그), 632-8014299

E-mail: Philipsdosuma@pacific.net.ph

포모사 타이베이

5월 5일 저녁 7시

연락처: 886-2-23757527, 886-2-23757528

E-mail: smchtaipei@kimo.com

일본 도쿄

5월 7일 오후 1시

연락처: 81-3-3291-4344, 3576-1113

E-mail: call3840@pop07.odn.ne.jp

한국 서울

5월 8일 저녁 7시

연락처: 82-2-577-2158/579-2781

E-mail: quanyim@unitel.co.kr

인터넷을 통한 신과의 직접 교신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지구촌 사람들의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에 오른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은 국경을 뛰어넘는 매체가 되었다.

신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관음법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특히 최신보도 부분) 역시 출간에 앞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오른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언어로 된 뉴스잡지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구해 볼 수 있다. '전 세계 관음 웹사이트'에 웹사이트 주소들이 나와 있으므로 누구나 이 목록을 복사하여 가까운 친지나 동료들에게 전해 줄 수 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이들 웹사이트에는 스승님의 출판물에서 발췌한 글과 스승님의 예술활동 및 자선활동에 관한 뉴스 등이 실려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스승님의 불찬과 노래, 시 등도 감상할 수 있다.

'<http://Godsdirectcontact.com/all.html>'에 들어가 보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주제별 요약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 알고 싶으면 해당 주제의 '링크'를 클릭해서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된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전자뉴스잡지 구독을 원한다면 아래 웹사이트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자)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자)



온라인 SMCH 서점

<http://www.smchbooks.com>

이 황금시대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지혜와 진리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온라인 인터넷 서점을 개설했다. 이는 새 시대의 새로운 조류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온라인 서점은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도서,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흥미롭고 상세한 요약설명과 더불어 최신 출판물과 오디오비주얼 간행물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머와 지혜로 넘치는 칭하이 무상사의 뛰어난 연설은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더없이 소중한 영혼의 자양분이며, 스승님의 책과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는 우리를 지혜의 음류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온라인 SMCH 서점은 값진 보배로 가득하다. 독자와 청취자 여러분의 제안이나 논평을 환영한다.



영적인 삶의 지혜 나누기

— 포모사 '정신서점' 개업 —

인류가 역사적인 새 천년과 신세계의 도래를 맞이하는 이 때, '정신서점'이 포모사 남부 카오슝에서 문을 열었다. '정신서점'이 2월 7일에 문을 오픈으로써 모든 이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인 삶에 관한 지혜를 즐기며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 서점에선 책과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 등 스승님의 모든 간행물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서점 한편에 마련된 우아한 갤러리에는 스승님의 예술작품도 전시되어 있다.

이 책방을 찾는 이들은 서점 안에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갓 끓인 커피와 스낵, 샌드위치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게다가 서점 내부에는 동수들과 직원들이 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명상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



주소 : 포모사 高雄市 三民區 九如一路 38號

스승님  말씀

우주 네트워크

칭하이 무상사/ 미국 텍사스 휴스턴 1993. 11. 13. (원문 영어)

모든 해답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현명할지 가장 무지할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모여 일체가 되면 강력해집니다. 그건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영적인 차원에서도 혼자면 약해져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전 우주와 하나가 되면 강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결관계를 이용해 일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이 네트워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 우주력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힘은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식과 지혜

칭하이 무상사/ 홍콩 1989. 9. 22. (원문 중국어)



우리 인간에겐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지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워서 안 것을 우리는 지성이나 지식, 혹은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의 의미는, 다른 이들이 이미 발견한 물질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지식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타고난 지혜’라 불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기억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첫번째 지식을 얻기 위해 무진 애를 씁니다. 이는 매우 유익한 일이며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문명화된 세상에서 혼자 뒤쳐져 다른 이들과 교류하기 어려울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천부적인 지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대가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 신문이나 TV에 최근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적으로 명상을 가르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고도의 명상기법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평이한 명상기법을 배웁니다. 게다가 아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성과가 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20분 정도만 명상하는데도 놀라운 성과를 얻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명상하는 학생들은 명상을 한 이후로 지적인 활동이나 반응체계, 기억력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반응도 느리고 기억력도 좋지 못하고 그리 총명하지도 않았는데, 명상을 배운 후로는 반응도 빨라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훨씬 총명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전보다 훨씬 빨리 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천부적 지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 일단 연결이 되었다 하면 이 타고난 지혜가 떠받치는 힘이 되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앎을 일깨우고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나 직관을 계발 시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듯이, 현대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 두뇌 용량의 극히 적은 부분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적은 부분만을 사용해도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우주선을 타고 화성엘 가거나 달의 여신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우주의 신비한 비밀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두뇌용량을 완전히 사용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명상을 한 후에 자신의 지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이 명상을 통해 두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명상은 우리의 지식과 지성, 혹은 두뇌의 다른 숨겨진 기능들을 완전히 계발시킬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저 잠시동안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답이 떠오르죠. 이것 또한 명상입니다. 신기할 게 전혀 없지요. 명상이나 묵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시켜서 다른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뜻합니다. 그것이 곧 명상이고 묵상입니다. 보통의 명상이나 의식집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명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그 문제에 집중시키면 해답이 금세 떠오릅니다. 밤이 되어 낮동안의 일을 모두 내려 놓고 긴장을 푼 채 잠자리에 누웠을 때 돌연 낮에 고심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섬광처럼 스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마음을 집중시켰을 때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잠시동안만 마음을 가라앉혀도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명상

할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매일 일정시간 동안 제쳐놓음으로써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거나 비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 이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선전도 아닙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죠. 우리는 지금 고도로 진보된 과학문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혹은 수만 년 전에 인간은 아주 미개하고 지성이 낮은 상태였는데, 그 때도 역시 완전히 깨달은 존재나 위대한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인물이었죠. 그

러니 오늘날은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이 그 때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깨달은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왔고 자연을 변혁시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총명해졌고 반응체계가 빨라졌죠. 둘째,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적으로 크게 진보했으며 고속 교통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수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정신적으로는 아주 편안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최신 오디오테이프

이전에 발행된 적이 없는 중국어 새 테이프
(선별된 특별판)

CE1 (테이프 4개)
진정한 선사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하는 힘
포모사 기륭 1987.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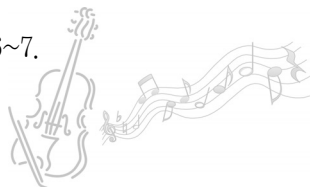
신구의(身口意)가 청정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포모사 신디엔 1987. 3. 8.

부처란 무엇인가? (1) & (2)
포모사 타이베이 1987. 3. 10.

CE2 (테이프 4개)
인간이 기생충처럼 살아선 안 된다
포모사 신디엔 1987. 3. 31.

수행자로서 겸손하되 열등의식은 갖지 말라
포모사 신디엔 1987. 6. 5.

능엄경 제 1권—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생사를 버리기로 맹세했다
포모사 신디엔 1987. 6. 6~7.



재발행 중국어 테이프(이야기 판)

CS1A (테이프 5개)
초대조사 마하가섭과 2대 조사 아난 이야기 (테이프 3개)
포모사 신디엔 1987. 7. 5~12.

3대 조사 상나수화 이야기
포모사 신디엔 1987. 7. 14.

4대 조사 우바국다 이야기
포모사 신디엔 1987. 7. 15.

재발행 중국어 테이프
CL21 (테이프 5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스승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는다
(1) & (2)
한국 1992. 3. 21.

가장 유익한 법문 (한국 스님들과의 만남)
한국 1992. 3. 23.

사랑을 베푸는 단체 (1) & (2)
한국 1992. 3. 23.

중국어 최신 테이프
CG70-6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하는 사랑



서아프리카 토고 · 베닌 소식

스승님의 빛이 서아프리카에 환히 비치다

【로메】 3월 초 토고 · 베닌 센터 동수들과 관음사자가 서아프리카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한 주간의 순회강연에 나섰다. 강연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지역인데도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와 지역 동수들의 애정 어린 지지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영상강연회는 로메에 있는 토고대학에서 열렸다. 그 날 강연회장은 진리를 열망하는 구도자들로 넘쳐났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향연이 벌어지는 세 시간 동안 내내 서 있어야 했는데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다들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자 모든 이들이 만족스러워하며 간단한 채식을 즐겼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아프리카 구도자들의 방편법이나 입문신청을 많이 받았다.

베닌에서는 스승님의 자애로운 안배 덕분에 3일 동안 두 차례의 영상강연회가 열렸다. 첫번째 강연회는 베닌대학에서, 두 번째 강연회는 유명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이나 입문 신청을 했다. 비디오 촬영을 위해 고용된 두 명의 카메라맨도 스승님께 큰 관심을 느껴서 방편법을 배우려고 남았다. 베닌 강연회에서는 영적으로 크게 고양되어 있고 스승님에 대한 칭송을 담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몇 년 전에 스승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셨기 때문인 듯 싶었다. 그 지역 동수들은 베닌에 센터를 열어 서아프리카 흥법을 지속적으로 벌이길 원했다. 강연회가 열리는 동안 축복의 힘을 강하게 느낀 참석자들이 강연회가 끝나자마자 책이나 가피물을 가져 가려고 부리나케 몰려들었다.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가치로운 이 법문을 알려주고자 했다. 방편법을 전수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좋은 체험을 했다. 연꽃 위에 앉으시는 스승님을 보거나 강렬한 천상의 빛을 보고 천국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곳은 물질적으로는 빈곤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곳이었다.



최근 서아프리카 토고의 로메지방에서 열린 영상강연회

《TINGO》(Togolais Independent D'information) 2000년 3월 8일자 신문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 캠퍼스 영상강연회 개최 — 인생의 신비에 관한 모든 해답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식

아프리카의 꿈

【더반】 칭하이 무상사는 작년 11월 말에 남아공화국을 순회하며 강연하실 때 더반 켄드라 홀에서도 한 차례 강연을 하셨다. 그 때 고벤다 여사가 이끄는 수리아랑가 무용단이 스승님을 환영하는 춤을 췄다. '아프리카의 꿈'이라는 제목의 그 춤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특유한 리듬이 한데 어우러진, 힘있고 다채로운 무용이었다. 칭하이 무상사는 감사의 선물로 이 무용단에 견본서와 1,100미국달러(한 사람 앞에 100미국달러씩)를 보내셨다. 뜻밖의 선물에 젊은 무용수들은 매우 기뻐했다. 단장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 돈을 단원들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보내 교재비와 등록금으로 쓰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칭하이 스승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미래 어느 날 스승님을 위해 공연할 수 있는 특전과 영광을 다시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리아랑가 무용단원들이 스승님에게서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받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새 천년 금룡(金龍) 퍼레이드

【LA】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LA센터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LA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새 천년 맛이 금룡(金龍)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5만여 명의 관람객들과 여행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동수들은 전통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우리 전시대에 매료되었거나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으려고 우리 전시대를 방문하는 수천의 사람들을 맞아 열심히 일했다. 전시대에는 스승님의 출판물과 정교한 예술작품,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들이 방대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많은 신문기자들이 우리 전시대를 취재해 갔는데, 그 중에서도 KSCI TV 채널 18은 다음 날 특집으로 “새 천년 맛이 금룡(金龍) 퍼레이드”라는 프로를 방영하면서 우리와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동수들이 축하행사에 참가하려고 찾아온 노숙자들을 위해 새 옷 몇 벌을 새해선물로 준비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한 노숙자가 우리 전시대 앞을 지나갔다. 그래서 동수들이 그에게 견본서와 채식음식, 옷가지들을 주었다. 훈훈한 대화를 나눈 뒤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시다. 제게 관심을 가져준 분들은 여러분들뿐입니다.”

중국 신년 용(龍)축제

【로우랜드하이츠】 금룡(金龍) 퍼레이드가 있는 두 주일 후인 지난 2월 26일과 27일 LA 교외 로우랜드하이츠에서 열린 ‘중국 신년 용(龍)축제’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LA센터가 또다시 참가했다. 노래와 춤 공연, 그리고 기다란 용만큼이나 길게 늘어선 전시대들이 2만여 명의 중국계 미국인들과 다른 민족출신 미국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끊이질 않아 길게 늘어선 전시대들 가운데 우리 전시대가 가장 돋보였다. 일부 동수들이 방문객들의 끝없는 질문에 답변하는 동안 나머지 동수들은 군중들에게 전단을 배포했다.

한 남자는 전시대 앞에서 한 시간이나 났을 읽고 서서 스승님의 천의 쇼 녹화 테이프를 지켜봤다. 그는 이 모든 의상을 스승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말을 듣고, “칭하이 무상사는 예술가이시기도 하네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여자 방문객은 스승님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표하며 미국인 친구들에게 줄 선물로 스승님의 책을 몇 권 구입했다.

관음법문의 위대한 힘에 탄복한 어느 후원단체 대표가 친구들과 함께



LA 신년행사 기간에 수천의 사람들이 스승님에 관해 알기 위해 우리 전시대를 찾아왔다.

전시대로 와서 채식과 명상의 이로움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뒤부터 방법법을 수행했다.

최근에 중국본토에서 온 한 여인도 관음법문이 자신이 수년 동안 찾아왔던 그 궁극의 법문임을 알고 방법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 여인은 그 날 밤 새벽 두 시까지 스승님의 강연집을 읽고 다음 날 다시 와서 천주교를 믿는 친척들도 이 법문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금 입문을 학수고대 하고 있다.

우리 전시대를 거쳐간 많은 방문객들이 다음 날 자신의 의문을 풀려고 우리 전시대를 다시 찾았다. 많은 이들이 매달 발행되는 뉴스잡지에 구독신청을 했고, 스승님이 LA에 오실 경우 연락을 해달라며 자신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갔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헌신적으로 전단을 배포하시는군요. 집에 가서 견본책과 잡지를 꼭 읽어보겠어요.” 인접한 전시대에서 일하는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다. 근처의 다른 전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기는 매한가지였다. 하루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또 하루는 폭우 속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는 동수들의 희생정신에 그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음료수를 권하며 자기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이슬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카니발은 성공적이었다. 우리는 대략 만장의 전단을 배포했으며, 약 천 부의 견본서와 잡지를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했다.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서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현재 입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새 친구들을 관음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

멕시코 소식

몬테리에 세워진 새 센터

【몬테리】최근에 몇몇 동수들이 다른 지방에서 몬테리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단체명상도 하고 몬테리 시를 중심으로 북부지방에 홍보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멕시코에 와 있는 관음사자가 몬테리 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영상강연회를 열기로 계획하고 곧바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려 다녔다. 결국 레지오몬타나 대학교 강당이 강연 장소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강연 날짜는 1999년 8월 27일로 잡혔다. 이 강연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다수가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방편법을 배웠다.

영상강연회가 있기 며칠 전에 몬테리 이공대학원(理工大學院) 학생연합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 왔다. 그래서 관음사자가 학생연합 월례정기모임에 참석에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많은 학생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여 스승님을 이 유명한 학교에 초청강사로 모시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영상강연회가 있는 후 몬테리에 동수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입문자들은 이곳에 새 센터를 하나 마련해 단체명상을 시작했다. 그 때부터 전단 배포도 정기적으로 행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침대보도 전달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몇몇 동수들이 합심하여 이 도시에 최초로 채식식당을 차렸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식강좌도 개설하여 채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독일 소식

어울락 신년 음악행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함부르크】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함부르크 어울락 난민협회는 음력 설날인 2000년 2월 5일에 음악행사를 열었다. 날씨가 쌀쌀했는데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서로 새해를 축하했다. 올해는 으레 차려지는 전통음식 전시대와 책과 잡지 전시대 외에 스승님의 전시대가 함부르크 동수들에 의해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전시대에서는 스승님의 책과 잡지와 채식음식이 진열되었으며, 스승님의 비디오도 하루 종일 상영되었다. 우리 전시대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지켜본 사람들 대다수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강당 안쪽에서는 음악이 울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바깥에 모여 스승님과 국제협회의 자선활동, 특히 어울락에서 펼친 수해 구호활동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시청했다. 고향 땅에서 일어난 재난 장면을 보며 몇몇 사람들이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뒤셀도르프와 베를린의 동수들 도움으로 이번 설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를린의 칭하이 날




【베를린】 베를린에서는 2월 19일과 20일에 선이(禪二)와 더불어 칭하이 무상사의 날 경축행사가 열렸다. 독일 전역은 물론이고 스웨덴에서까지 동수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멋진 시간을 보냈다.



한국 소식

채식요리 경연대회

【서울】 올해 칭하이 날에는 서울 SM 채식뷔페에서 푸짐한 채식요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 동수뿐 아니라 지방 동수들까지 자리를 함께 해서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맛있는 채식요리를 한껏 즐겼다. 전국의 동수들이 오전 10시부터 채식식당에 모여 비장의 요리법으로 수십 가지가 넘는 풍성한 요리를 준비했다. 매년 경연대회를 거듭하면서 동수들의 요리솜씨가 날로 좋아져 야채와 콩, 곡류만으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환상적인 요리

들도 많이 출품됐다. 이 날의 심사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일반 동수들이 담당했다. 심사결과 최고의 맛 상은 은행팔죽을 출품한 사저에게로 돌아갔으며, 모든 출전자들이 스승님의 달력을 상으로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엔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고, 유쾌한 축하행사를 벌였다. 별나라 공주님으로 분장한 두 사저의 노래공연에 이어 제기차기, 대왕뽑기, 다트게임, DDR, 윗놀이 등 여러 재미있는 게임판이 벌어졌다. 나이든 동수들도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듯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게임에 참여했다.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DDR' 게임은 특히 어린이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 모처럼 만에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동수들과 손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과 게임을 즐긴다.



한국 서울 SM 채식식당에서 열린 채식요리 경연대회

캐나다 소식

칭하이 날 6주년 기념행사

【몬트리올】 1994년 2월 22일 시카고에서 선포된 칭하이 날이 올해로 6주년을 맞았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몬트리올 센터는 정기 일요 단체명상이 끝나는 대로 센터를 개방하고 모든 이들에게 채식뷔페를 대접했다.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좋았다. 여러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 가족과 친지들, 특별 손님들이 이번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은 스승님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무료 뉴스잡지, 매체보도기사 등을 보고 읽음으로써 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스승님의 자선활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맛있는 채식요리들을 많이 장만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멋진 케이크를 많이 준비했다. 다른 단체에서 온 손님들은 전부 우리 단체가 매우 조직적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와 같은 행사가 단 며칠만에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했다. 만인



몬트리올 센터의 칭하이 날 기념행사에 채식 케이크와 다양한 채식요리들이 풍성하게 마련되다.

에게 센터를 개방한 이 날 행사는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과 동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99년도 종합보고

많은 손님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승님께 관해 알게 되었다.

【토론토】 토론토 남서부 한 모퉁이, 거리에 인접한 어느 수수한 연립주택 안에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토론토 센터의 보금자리가 있다. 남녀 동수들과 몇몇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단체명상과 선에 참여한다. 대개는 단체명상 전에 스승님의 영어 비디



캐나다 온타리오 밀턴의 블루우즈스프링스에서 열린 야외 선이(禪二)

오테이프를 시청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어폰으로 어울락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안내방송은 중국어로도 곧잘 통역된다.

1999년에 우리는 홍법을 위해 두 차례의 공개세미나를 열어 토론토 시민들이 비디오오테이프를 통해 스승님의 솔직하고 재미있고 영감에 찬 지혜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게 했다. 세미나는 스카보로 메트로 스퀘어 센터와 토론토 브렌트우드 도서관에서 열렸다.

1999년 여름, 토론토 센터는 제 15회 연례 채식박람회에도 참가해 채식전시대를 하나 운영했다. 이 행사는 북반구에서 가장 큰 채식단체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토론토 채식인연합에서 후원했다.

1999년에 토론토 센터는 지역 자선단체에 여러 차례 재정지원도 했다. 우리는 청하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월 22일과 10월 25일에 여러 자선단체, 즉 연합자선기금, 캐나다 국가맹인협회, 노인성치매협회, 다발성경화증협회, 부활절 실 협회, 성약(聖約)의 집, 중도의 집 등에 기부금을 보냈으며, 코소보 분쟁과 터키·포모사 지진, 인도·어울락 수재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재난 구호활동에도 지원금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 기간에는 집 없는 이들에게 따스한 선물을 보냈다.

토론토 센터에서 축하행사나 선행사를 가질 때 채식음식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종종 각자가 음식을 마련해 와서 요리법을 서로 나누는데, 최근에는 채식고기요리 만드는 법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주방 일꾼들은 정말 우리의 보배다!

1999년 7월 연례 야유회에서는 무엇보다 맛난 음식과 재미있는 놀이들이 두드러졌다. 오타와, 런던, 윈저 센터에서 온 손님들까지 포함된 참가자 전원이 발리볼, 축구, 어린이 게임, 숲 속 장애물 경기 등에 참여하고



1999년 7월 하트레이크 보호구역으로 여름소풍을 간 동수들

토론토 부근의 작은 해변에서 수영을 하면서 매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모든 곳에서 웃음꽃이 피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이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명상하는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배려하고 화합하는 마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이익을 다투지 않는 모습, 서로 사랑하며 대화하려는 모습에서 명상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지를 명백하게 보았다.

토론토 센터는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비록 일 주일에 한 번 들러 명상을 하고 점심을 먹는 게 다라고 해도 말이다. 이곳은 우리가 진리를 구하는 신실한 동수들의 집단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곳이다. 이런 하나된 느낌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센터는 작은 우주,



토론토 채식박람회장에서 홍법하는 모습

우리들만의 '작은 천국'이 되어왔다. 그곳에선 우리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한데 어우러져 가장 아름답고 생산적인 빛을 발한다.

벤쿠버 전람회

【벤쿠버】 어울락 지역공동체가 주관한 2000년 2월 12일 신년행사에서 벤쿠버 동수들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견본책 등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했다. 많은 이들이 와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문의를 했다. 🍦



스승님의 가르침이 실린 사실을 알았다. 이 기사는 스승님의 견본서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그 기사를 쓴 기고가와 편집인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동수들이 단체명상 후에 함께 차를 마시다.

네팔 소식

스승님의 은총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다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팔 센터는 집 없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식사와 담요를 제공했다. 그들은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객들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단체명상을 여는데, 그래서인지 입문자나 예비입문자 모두가 센터의 기운이 새롭게 고양되었음을 느꼈다. 그건 스승님의 축복이 가져다 준 기적이었다.

최근에 한 사형이, 어느 주간지 종교란에 세 차례에 걸쳐

【카트만두】 새 천년으로 접어드는 이 때, 카트만두 센터는 스승님의 은총을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올해 초, 동수들은 소규모 선을 열고 센터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동수들이 작년 한 해의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 진보를 거두었다는 걸 알았다.

지금 센터는 동수들과 방문



어린이들이 담요를 받다.

호주 소식

골드코스트 전람회

【브리즈번】 새 천년 새아침 2000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4일간의 연례 박람회에 브리즈번 센터가 또다시 참가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는 수행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 동수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해줄기가 훨씬 수월했다. 매년 브리즈번 동수들은 여러 축제와 박람회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여는데, 이들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

포모사 소식

제 10세대 천상의 보석 인기투표

【SM소식】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스승님은 특별히 황금시대의 정신을 묘사하는 제 10세대 천상의 보석을 디자인하셨다. 여기에는 ‘생명의 태양’, ‘우주를 품은 빛’, ‘천년연화’, ‘삼계의 왕’, ‘스승의 집’, ‘낙원으로 가는 다리’, ‘창조의 무지개’, 이렇게 7개의 컬렉션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세트마다 찬란하고 영광된 빛이 가득하다. 2000년 3월에 열린 시후 센터 선이(禪二)에서 SM 천상의 보석팀은 ‘제 10세대 천상의 보석 인기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동수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선정하게 하고 사랑과 지혜의 논평을 하게 한 행사이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수들의 참여의지가 뜨거웠다. ‘투표자 수’가 어마어마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기다렸다가 투표를 했다. 몇몇 참여자들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이(禪二)에서 평온한 명상을 즐기는 것 외에 우리는 새 시대를 향한 스승님의 특별 축복인 제 10세대 천상의 보석을 감상할 기회를 얻었다.: 모든 이들이 황홀경에 빠졌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스승님의 지치지 않는 창조력에 놀랐다. 투표를 개봉한 사저의 말에 따르면, 동수들의 열정과 순진함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동수들의 논평에는 지혜가 번뜩였으며, 어린 동수들의 견해는 특히 순수함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투표는 일요일 정오에 끝났다. 투표결과는 ‘스승의 집’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작품은 독특한 디자인과 화려한 빛깔로 동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이 되었다. 하지만 작품의 보다 큰 매력은 바로 제목이다. 그 작품의 제목은 동수들로 하여금 어서 빨리 성불하여 ‘스승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게 한다.

화렌 청소년 교도소 방문

【화렌】 선달 그믐날 우리는 포모사 갱생보호회 화렌지부 초청으로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 교도소의 소년소녀 수감자들을 방문했다. 우리는 다함께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스승님의 자선활동을 보여주는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시청하며 그들이 내면의 성찰과 영적 성장의 길로 들어서기를 희망했다. 그들의 열렬한 바람으로 그들에게 방편법이 전수되었다. 우리는 그들이 방편법을 배움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문제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다들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 많은 이들이 편

지를 쓰며 눈시울을 적셨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생을 사는 동안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될지라도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고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했다.

90분간의 영적 교류의 시간을 마친 뒤 우리는 그들에게 행운을 빌며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마음이 훈훈해지기를 희망하며 채식 케이크와 파이, 초콜릿 등을 그들에게 전했다.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 표창

【미아오리】

미아오리 현(縣)에서 벌인 동수들의 환경보호 자원봉사 활동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1월 26일 미아오리 현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미아오리의 낙원공원에서 열렸다.

푸 수에펑 미아오리 현장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자들에게 단채상을 수여했다.



환경보호활동으로 동수들이 수상한 트로피

음력설 지역행사

【카오핑】 포모사 남부에 있는 라이이 센터에서 신년축하 지역행사를 주관했다. 이 행사에는 입문자들과 가족들, 친지들, 다른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지역 지도

자도 그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화려한 사자춤, 제비뽑기, 피아



라이이 센터의 신년축하 행사 참가자들이 채식바비큐를 즐긴다.

노와 하프 연주, 채식바비큐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활동으로 점차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풍선 터뜨리기 대회와 '새로운 세기를 향한 그림'이라는 주제로 열린 어린이 그림대회를 비롯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어린이 그림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황 링잉 (12세) 사저의 그림



즐겁게 풍선을 터뜨리는 어린 입문자들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시회

【타이베이】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도서전이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다. 6일간 지속된 이 박람회에 40만 이상의 방문객이 몰렸다. 이 행사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는 아름답고 우아한 전시대를 하나 운영했다. 광범위한 주목을 끌었던 우리 전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맞았다. 우리는 우리 전시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정교하게 인쇄된 '행운의 새 천년' 북마크를 선물했다. 다음은 포모사의 어느 일간지가 우리 전시대에 관해 보도한 내용이다. 🍵



포모사 (대만일보) 2000년 2월 17일자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포스터들이 도서전시장을 빛낸다

【타이베이 천 링팡 기자】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동안 이곳에 마련된 전시대, 예를 들면 불광문화사(佛光文化社), 법고산(法鼓山), 보음문화사(普音文化社) 등의 불교계 출판사들이나 다른 여러 단체에서 마련한 전시대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C구역에 마련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전시대였다. 이곳에는 대형TV가 설치되었고 다양한 출판물들이 전시되었다. 높이 걸려 있는 칭하이 스승의 여러 눈부신 포스터들이 박람회를 보러 온 책 애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들 포스터에는 매력적인 의상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한 칭하이 스승의 멋진 모습들이 담겨 있다. 이런 수많은 대형사진과 출판물을 통해 칭하이 스승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가 처음으로 대만에 '종파를 초월한' '즉각 깨달음의 법문'을 소개했을 때 불교계 내에서 뜨거운 논쟁도 일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계 도처에 무수히 많다. 지금 칭하이 스승은 해외에 있지만, 칭하이 스승의 제자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시회장에서 그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에 따르면, 칭하이 스승은 많은 재능을 타고 났다고 한다. 그는 시화에 능할 뿐 아니라 의상과 보석디자인도 할 줄 아는데, 종종 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옷들을 입기도 한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아름다운 성자'라고 부른다. 🍦



신문의 사진설명: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가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 출품한 간행물과 전시물들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사진: 위 천유 기자)

칭하이 무상사 최신 비디오테이프

〈영어+핀란드어 통역〉

663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

핀란드 헬싱키 강연 1999. 5. 30.

〈영어〉

664 인과의 법칙

미국 뉴욕 마리오 호텔 단체명상 1999. 8. 4.

〈영어+터키어 통역〉

666 마음의 안식

터키 이스탄불 강연 1999. 11. 20.

〈영어〉

667 신을 향해 생명의 봉화를 올려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강연 1999. 11. 25.

〈영어+줄루어 통역〉

668 보이지 않는 통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강연 1999. 11. 26.

〈영어〉

669 신의 자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강연 1999. 11. 27.

칭하이 무상사 최신 오디오테이프

새로 나온 영어 테이프

E67 (테이프 4개)

파리 국제 보석전시회

스승님의 예술품에 담긴 의미 (1) (2)

1997. 1. 24.

창조의 목적 (1) (2)

영국 런던 단체명상 1998. 3. 10.

E68 (테이프 5개)

자신의 신성을 인식하라

미국 캘리포니아 알바인 대학 강연

1998. 6. 2.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품성을 계발하라 (1) (2)

미국 플로리다 센터 추석행사 1998. 10. 4/5.

내면에 있는 진리를 밝혀라

미국 캘리포니아 LA 단체명상 1998. 12. 19./ 1999. 1. 1.

E69 (테이프 5개)

침묵 속에서 신을 알자 (1) (2)

스페인 마드리드 강연 1999. 5. 5.

신과의 교류 (1-3)

포르투갈 리스본 강연 1999. 5. 7.

E70 (테이프 6개)

〈영어+네덜란드어 통역〉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라 (1)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강연 1998. 5. 9.

〈영어+폴란드어 통역〉

다같이 밝은 미래를 건설하자 (1) (2) (3)

폴란드 바르샤바 강연 1999. 5. 11.

〈영어+러시아어 통역〉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러 왔다

러시아 모스크바 강연 1999. 5. 13.

E71 (테이프 6개)

〈영어+아르메니아어 통역〉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아르메니아 예레반 강연 1999. 5. 15.

〈영어+불가리아어 통역〉

사랑과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불가리아 소피아 강연 1999. 5. 18.

〈영어+그리스어 통역〉

최상의 미덕은 신을 아는 것 (1) (2)

그리스 아테네 강연 1999. 5. 20.

〈영어+이탈리아어 통역〉

신을 알려면 신이 되어야 한다 (1) (2)

이탈리아 로마 강연 1999. 5. 22.

E72 (테이프 5개)

〈영어+헝가리어 통역〉

우리 진아의 본질 (1) (2)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연 1999. 5. 24.

〈영어+슬로베니아어 통역〉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1) (2)

슬로베니아 류블리야나 강연 1999. 5. 26.

〈영어+체코어 통역〉

무지가 유일한 죄이다

체코공화국 프라하 강연 1999. 5. 28.

새로 나온 프랑스어 테이프

F3 (테이프 2개)

〈영어+프랑스어〉

스승님의 예술품에 담긴 의미 (1) (2)

파리 국제 보석전시회 1997. 1. 24.

관음법문

신의 ‘말씀’을 따라 근원으로 돌아가자

‘SAFM’ 라디오 ‘오늘의 여성’과의 인터뷰

칭하이 무상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1999. 12. 2. (원문영어)

M.C.: 다음 초대 손님은 ‘살아 있는 부처’라고 알려진 분으로 이미 종교의 개념과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적십자활동 등을 통해서 세상의 병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 왔으며,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히말라야 구도여정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동양에서 말하는 이른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관음법문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고, 명상협회를 통해 전 세계의 고통받는 사람들과 재난민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분 스스로는 ‘미약한 힘’이라고 칭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 ‘세계영적지도자상’, ‘인권증진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분은 세계종교회의의 참석차 케이프타운에 와 계십니다. 칭하이 무상사님을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이번 케이프타운 세계종교회의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M: 아득한 옛날부터 한결 같은 진리지요. 그건 우리 내면에 신이 있다는 것이고, 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 신을 찾는 일이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 방법을 잊었다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M.C.: 여기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관음법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관음법문이란 무엇이고 다른 명상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M: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법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법문을 잊었지만, 그 맥은 다른 시대, 다른 나라를 거치며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 좋은 사람들이 늘 그 법맥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음(觀音)’이란 중국어로 내면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인데, 이 내면의 소리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신의 언어로서 에너지나 바이브레이션(진동) 혹은 천국의 음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자 만물이 돌아갈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한

이 ‘말씀’, 천국의 진동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관하는 것이 ‘관음(觀音)’입니다.

M.C.: 방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스승님께서서는 불교적이고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성장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M: 맞습니다.

M.C.: 어떻게 이 두 종교를 같다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M: 나는 평생을 진리를 찾아다니며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공부했고, 마침내 모든 종교가 똑같은 하나의 진리, 즉 신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신을 지칭하지만, 신을 찾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사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을 찾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뿐이지요.

깨달음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M.C.: 스승님께서서는 히말라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M: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깨달음 자체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M.C.: 정말입니까?

M: 예.



M.C.: 그러니까 실제로 깨닫는 순간은 단 몇 초 사이라는 말씀이군요.

M: 예. 그 후에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요. 계속 노력을 기울인다면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내면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신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M.C.: 스승님께서는 깨달은 존재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로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을 디자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스승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M: 그 일이 내 영혼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고양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예술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깨달아도 잠자고 있던 내면의 모든 잠재적 능력이 깨어납니다. 신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신이 있으니까요. 신이 깨어나면 자연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M.C.: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은 히말라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기 위해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가야만 하나요, 아니면 도시의 빈민가에서도 깨달을 수 있나요?

M: 지금 여기서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깨닫는 방법을 여러분의 문 앞까지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처럼 히말라야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M.C.: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하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M: 당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라디오 720 '믿거나 말거나'와의 인터뷰

칭하이 무상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1999. 11. 28. (원문 영어)

M.C.: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칭하이 무상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예술가이자 영적인 교사이자 인도주의자이자 한 사람의 시인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은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살아 있는 부처일 뿐만 아니라 유머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밤 칭하이 무상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프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남아공을 방문한 게 처음이시라 이곳 사람들은 칭하이 무상사님이나 스승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사, 즉 최고의 스승이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방면에서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M: 그건 우리 단체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스승이 많아서 혼동될까봐 나를 '우두머리 스승'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총지배인' 처럼 말예요. (스승님이 웃으시다.)

M.C.: 스승님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특정 종교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까?

M: 종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M.C.: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종교라니요?

M: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 모두 동일한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신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없고 특정 종교를 따르고 다른 종교는 버린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M.C.: 그럼 스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뭐죠?



M: 이 메시지는 지고의 존재에게서 온 것입니다. 한 인간인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주 최고의 사랑의 힘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신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알수록 더욱 좋지요. 그럴 때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밖으로 세상의 평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M.C.: 왜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말해 줘야만 합니까? 이미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으며, 회교승려나 랍비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당신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M: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있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잊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입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신을 믿고 기억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신을 직접 보여줍니다.

관음법문은 신에 이르는 지름길

M.C.: 어떻게 신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M: '신'은 창조주, 지고의 존재를 부르기 위한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모세가 본 것처럼, 또 예수, 세례자 요한, 다른 고대의 스승이 본 것처럼 우리도 신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 안에서 천상의 비전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신을 빛으로, 수천 개의 태양과 같은 찬란한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양의 파도소리 같고, 천둥소리 같은 웅장한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에 있는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면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M.C.: 사람들을 어떻게 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경지로, 그런 이해의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지요?

M: 사람들을 그런 경지로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내면에 이미 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만 하면 곧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서 신의 왕국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의 법문입니다.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M.C.: 칭하이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M: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육신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누군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신에게 가고자 한다면 신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신은 당신 스스로 우리 내면에 있는 신과 다시 연결될 겁니다.

M.C.: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M: 예, 정말로 쉽습니다.

M.C.: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요.

M: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장 쉬운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천 수만 년을 갈등한다고 신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면 단 일초만에, 순식간에 신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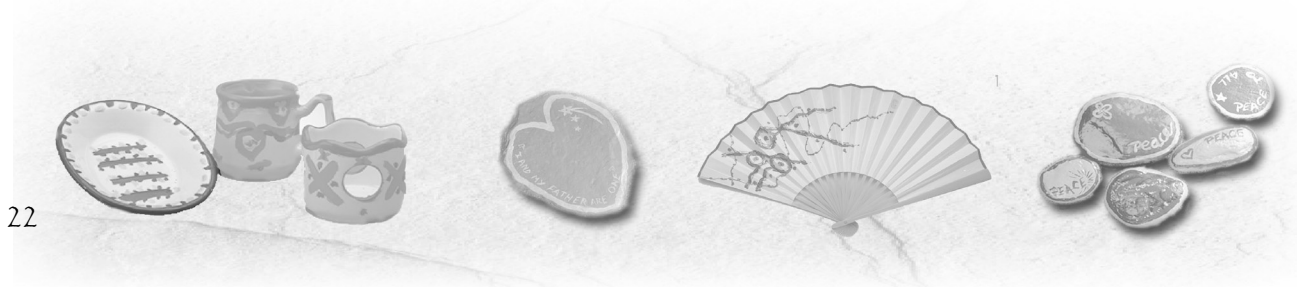
M.C.: 방법을 알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까?

M: 방법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되지요.

M.C.: 예를 들어서요?

M: 예를 들어,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법과 스스로 자신의 진아, 가장 위대한 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오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왔겠는가



M.C.: 방금 전에 성경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스승님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닌데, 성경을 인용하시는군요.

M: 나는 모든 종교를 신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핵심은 하나같이 “신은 하나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린 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눈으로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M.C.: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M: 예를 들면, 우리는 천상에 올라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활, 수천 배나 더 아름다운 존재들을 볼 수 있습니다.

M.C.: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곳에 갔다와서 알려 줬습니까?

M: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방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지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천국에서 내려온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지요.

M.C.: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M: 우리 자신이 직접 천국으로 돌아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스승님이 웃으시다.) 지옥에서 왔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했고, 부처와 마호메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신의 자녀들이고 천국에서 왔음이 분명합니다.

M.C.: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고,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M: 압니다. 하지만 난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도 믿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속으로는 믿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인지도 모릅니다. 뭔가 남다르게 보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상관없습니다.

M.C.: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청취자 전화를 받도록 하지요. 세계종교회의에 참석하실 청하이 무상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잘 알려진 설교자로 세계각지를 다니며 신과 깨달음에 대해 강연을 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신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M.C.: 자매님, 전화를 주신 분의 얘기를 잘 들으셨는지요?

M: 아니오, 잘 못 알아들었어요.

M.C.: 그가 기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의 신화를 믿든 고대신화나 다른 뭔가를 믿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M: 맞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신을 아는 것은 숨을 쉬는 것보다 쉽다

M.C.: 이번에 강연과 함께 워크숍을 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크숍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M: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근원, 하느님 아버지, 혹은 성모를 알고자 하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내면의 신이 서로를 다시 연결시켜 줄 겁니다.

M.C.: 너무 쉬운 일 같이 말씀하시는군요.

M: 내 말을 믿으세요. 이젠 숨쉬는 일보다 쉽습니다.

M.C.: 내가 여기서 ‘악마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죠.

M: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M.C.: 지금 수천 명의 청취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스승님의 말씀이 다소 오만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그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대로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M: 신은 논쟁이나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고, 나는 여러분에게 “자, 이제 여러분은 신을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것처럼 쉽습니다. 성경에선 신의 왕국이 여러분 내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C.: 예

M: 성경에선 우리가 신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말고 누가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신은 이미 거기에 있으니까요.

M.C.: 예. 성경은 그렇다 치고 코란이나 바가바드기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M: 마찬가지로. 모두 자신의 근원을 아는 것, 동일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성이라 하든 신이라 하든 알라라 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나 ‘여보’, ‘자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각기 다른 언어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들의 원래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부처가 높으니 그리스도가 높으니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각각 히브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성인’을 지칭하는 동의어입니다.

만물은 말씀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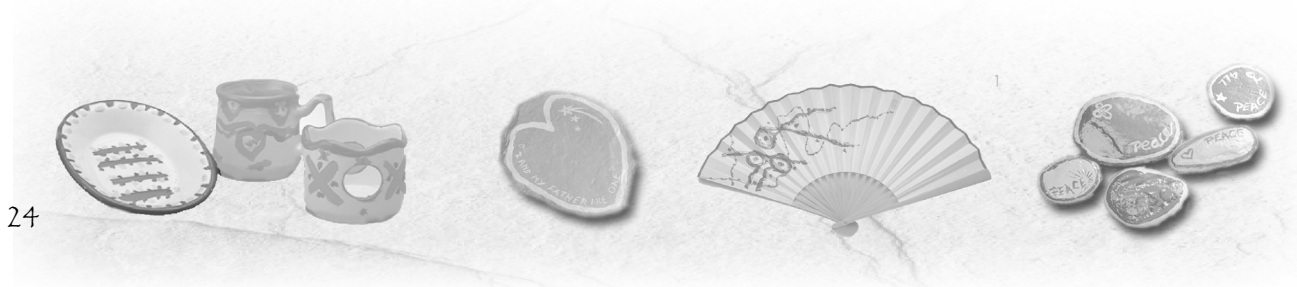
M.C.: 여기 팜플렛에 보면, 스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신실한 구도자들을 관음법문에 입문시키는 것이며, 이 입문이란 깨달은 스승을 통해 지혜안을 열고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음법문에 대해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M: 관음(觀音)이란 중국어로 ‘말씀’, 진동, 천상의 소리, 음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언어로는 그것의 참뜻을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군요. 차라리 성경을 인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 이니라.” 우주만물이 이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면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신과 함께 있었던 ‘말씀’, 바로 신이었던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주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지요. 그것은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한 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은 꽃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의 물질적인 측면이지요.

M.C.: 관음법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M: ‘관음(觀音)’에서 ‘음(音)’은 신의 ‘말씀’을 뜻합니다. 신과 하나 되려면 신의 ‘말씀’을 따라 돌아가야 하는데, ‘관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말씀’이 ‘관음’과 같은 뜻인데도 우리는 이런 걸로 논쟁합니다. ‘관음’이란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진동력을 관(觀)하는 것, 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포모사에서 홍법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법문을 중국어 명칭으로 부른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지고한 존재의 현시

M.C.: 샤론 씨의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빛을 보거나 위대한 존재를 만날 때 자신의 신앙이나 종교에 따라 각기 다른 존재들, 즉 모세나 예수, 부처 같은 사람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당신을 만난 제 친구와 방금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당신은 죽음이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도 가르침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M.C.: 다른 말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고, 또 그들이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묻는 건가요?

S: 그게 아니라,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불교인은 부처를 만난다는 겁니다.

M.C.: 감사합니다, 샤론 양.

M.C.: 기본적으로 샤론 양은 죽음과 사후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군요. 힌두교인이라면 힌두교의 천국에 가서 힌두교의 성자와 신과 여신들을 만날 것이고,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얘긴데요, 결국 문화적인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군요. 그는 '사후'에 관한 스승님의 견해를 알고 싶어합니다.

M: 간단히 말해 그가 들은 내용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신은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요. 죽은 사람이 자신의 종교 밖에 모른다고 하면 신은 그의 종교와 관련된 성인, 즉 그리스도나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신의 현시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우리단체 사람들은 매일 죽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잠시동안 이 육신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렇게 명상을 하면 기독교인이라도 간혹 부처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불교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고 신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나 부처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이 가급적이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스승이나 종교의 대표자를 보내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지요. 처음엔 그래도 나중에는, 스승들은 모두 신의 자녀들이며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지고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M.C.: 여기서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지금엔 다시 "믿거나 말거나" 시간입니다. 저는 케이트 터킹톤이고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의미와 신과의 만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대손님인 칭하이 무상사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신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하이 무상사님, 사실 저는 아직도 당신이 말씀하신 개념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연결해서 조안 씨의 얘기를 들어보지요, 조안 씨?

J: (선명하게 들리지 않음)

M.C.: 조안 씨는 당신이 어떻게 이러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이런 계시를 얻으셨으며,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도요.

M: 이것을 신의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입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것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모는 방법이 있고, 축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학처럼 아주 정확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법만 알고 나면 매일 신과 교류하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디에서 신을 찾는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데 약 30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을 못 보는 겁니다. 만



일 당신이 내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다면 나는 당연히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수화기에 대고 당신에게 말을 하고 또 당신의 말을 주의해서 듣는다면, 우리 서로 상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잊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도도 주지 않은 채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을 리는 없지요.

모든 스승이 고행을 해야하는 건 아니다

M.C.: 이반 씨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I: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서를 읽어봤습니다. 정말 놀랍더군요.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교리나 도덕규범 등은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믿음과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모든 종교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님이 추구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칭하이 스승님께서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그게 스승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M: 나를 직접 본적이 있습니까?

I: 사진에서 보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M: 감사합니다.

I: 모세나 예수, 석가모니불이나 불교계의 다른 스승들, 혹은 힌두 스승들처럼, 제가 아는 대부분의 스승들은 고행을 한 것 같은데요.

M: 맞아요. 나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I: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반기를 들려고 결심하셨군요. 이 점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소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진 않으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포장 안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모습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M: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하느님의 종일뿐입니다. 싫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또 이 옷들은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니 모델 노릇도 내가 해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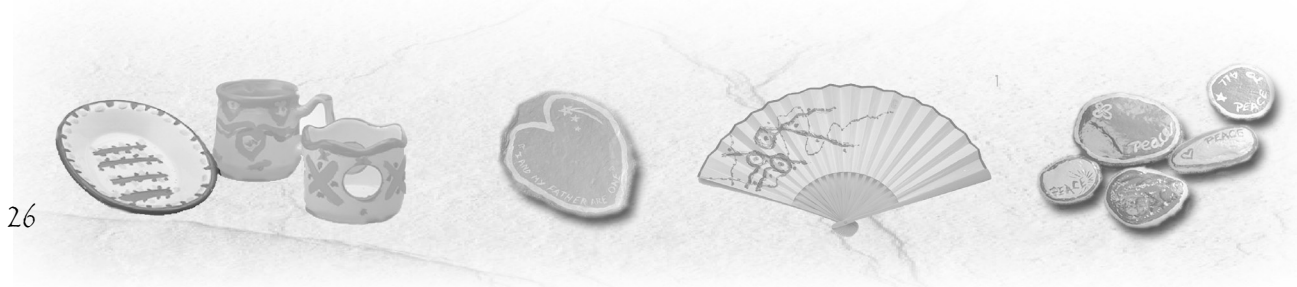
I: 예, 대부분의 옷들을 직접 디자인하셨지요. 제가 찾은 유일한 비판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수한 옷을 입는데 당신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신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을 남성으로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 신은 여성으로 볼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남성으로 칭하니까 나도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추세를 따르는 것뿐이지요. 사실 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또 당신의 의문에 대해 참고삼아 말한다면, 사실 스승들이라고 다 누더기를 걸치고 다닌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크교의 스승 고빈다싱은 화려한 보석과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다녔고, 불교의 관음보살도 늘 공주처럼 입었습니다. 몇몇 예를 들면 그래요. 신이 누군가에게 이일 저일을 시킬 때는 그 당시 스승의 운명이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도 맞아요. 나 역시 단순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런 삶이 훨씬 간편합니다.

깨달음은 잠자고 있는 재능을 일깨운다

M.C.: 스승님께서는 시도 쓰시지요. 견본서에도 스승님의 시가 몇 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천의나 보석 같은 예술품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창작품을 천상의 작품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닌지요? 미켈란젤로의 천상의 작품, 레오나르도의 천상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일개인의 작품을 천상의 작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좀 주체넘은 것 같습니다.



니다.

M: 그건 내가 천상의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전에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이 내게 깨달음을 준 후에야 비로소 그처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천국의 은총으로 돌리는 겁니다.

M.C.: 시 역시 그렇습니까?

M: 아니오, 모든 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들은 깨닫기 전의 작품들로서 내 개인의 느낌들을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신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천상의 시나 천국의 시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깨닫기 전에 쓰여진 시들이라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생의 발자취' 라든지 '사랑의 시' 혹은 '전쟁시' 처럼 말입니다. 시의 내용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나 '사랑의 바다' 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신을 묘사한 거지요. 하지만 천상의 시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무상사(無上師)는 신이 내리신 이름

M.C.: 예, 에드가 씨의 전화가와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 세상

에 스승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스승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M: 예, 몇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등급의 스승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들 각자는 신을 이해하는 차원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의식을 한 차원으로 높이고 지구를 더욱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M.C.: 전 아직도 스승이라는 개념과 무상사(無上師)라는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칭호는 어디서 유래되었습니까?

M: 그건 신이 주신 것입니다.

M.C.: 그 말씀은, 신이 당신께 무상사(無上師)의 지위를 부여하시도록 당신 스스로 결정했다는 말씀인가요?


M: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신이 내게 말했습니다.

M.C.: 신이 “너는 무상사다”라고 말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M: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무상사(無上師)’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자는 자는 ‘나’가 아니며, 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면의 스승입니다.

M.C.: 그러면 스승님께서서는 추종자들에게 “나 칭하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다”라고 하십니까?

M: 아니오, 내가 의미하는 건 가르침입니다. 즉 그들을 다시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힘은 신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M.C.: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요.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은 칭하이 무상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상사(無上師)’란, 신이 내리신 칭호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딸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여받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몇 가지 의문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께서는 보석을 디자인하고 판매도 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은 존재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일 같습니다.

M: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신의 일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고 비행기표를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또 남은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하고요.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택시를 타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난 기부금은 받지 않습니다. 신은 내게 오직 줄 수만 있지 받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M.C.: 팔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고



요?

M: 오직 줄 수만 있습니다. 물론 작품을 팔지만, 그건 나의 일이고 노동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냥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M.C.: 그렇지요.

M: 판매 수익을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부금을 받을 순 없습니다.

채식은 영적이 부담이 적다

M.C.: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서에서 말하는 5계 가운데 “살생하지 말라”에 파리나 바퀴벌레, 모기 등도 포함됩니까?

M: 가능하다면요, 물론 인간은 곤충보다 귀합니다. 광신적일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집안 환경을 깨끗이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살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M.C.: “거짓말하지 말라”는 대다수 종교의 교의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M: 예

M.C.: “주지 않은 것을 갖지 말라.”

M: 맞아요. “훔치지 말라”는 뜻이지요

M.C.: “간음하지 말라.”

M: 간음하지 말라. 성경의 계율과 같지요

M.C.: 좋습니다. “정신에 해를 주는 물질을 취하지 말라.”

M: 마약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가능하다면, 담배도 피우지 말고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을 금하라는 것인데, 그 중 마약이 제일 중합니다. 담배는 천천히 끊으면 됩니다.

M.C.: 첫번째 계율 “살생하지 말라”로 돌아가서요, 첫번째 계율의 추가 조항이 완전채식(유제품을 제외한 일체의 동물성 식품, 즉 계란과 생선도 금함)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신을 볼 수 없습니까?


M: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려면 부담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동물의 자장은 우리를 더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부담을 줄이려면 살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뿐입니다. 채식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전혀 채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으로 신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신을 믿을 테니까요. 물론 그들이 신을 믿고 신이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즉시 그들은 정화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꺼이 채식주의자가 되지요.

신은 영원한 사랑임을 기억하라

M.C.: 칭하이 무상사님,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니까?

M: 신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신을 기억하십시오. 신은 영원히 자비롭습니다. 신은 복수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신은 영원한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신은 오직 한분이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나 하느님의 심판 같은 것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간에 신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신이기 때문입니다.

M.C.: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M: 신은 무량무변(無量無邊)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빛과 소리입니다. 신은 이 내면의 소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소리를 통해 지혜를 얻지요. 이 소리는 천둥소리나 파도소리 같기도 하고, 아름다운 선율 같기도 합니다. 또 그 소리는 영혼을 달래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주고, 지혜를 열어주며, 다시 신의 사랑을 받게 하고, 다시 성자가 되게 하며, 전처럼 다시 천상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나 부처 등의 과거 스승들을 만나 그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탄 유잉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할머니가 아버지를 나은 뒤 3개월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고아가 되었다. 아버지는 전쟁 기에 성장하여 30대 초반에 장교가 되었다. 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 하려는 아버지의 욕망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신 결과라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너무나 독단적이셨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두 아버지의 그런 성격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 전에 그런 아버지의 성격이 극단적인 불안감에서 기인한다는 걸 알았다. 이런 불안감은 아마도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가져다 준 흔적일 것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그에 관해 점차 우려하며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아버지는 돈을 쓰는 걸 두려워했고, 삶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마저 누리길 꺼려하셨다. 만사를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큰 재난은 아버지가 그렇게도 강하게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입문을 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뒤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전과는 달리 크게 안정되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는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매우 행복해 하였고, 작은 일에도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무슨 일이든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아버지는 삶의 열정을 얻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께 호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삶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했다! 사랑이 마치 햇살처럼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

을 따스하게 비췄다. 이런 모든 변화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스승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스승님은 아버지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멋진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스승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여든 다섯이란 나이에도 아버지는 심신이 아주 건강하셨다. 아버지는 포모사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 사이를 왕래하며 잠깐씩 머무는 걸 좋아하셨다. 1995년 말 아버지가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셨다.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나와 막내를 불러놓고 동수들과 방편법 수행자들을 모두 불러 저녁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 준 것에 감사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리고는 당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당신이 돌아가면 장례식은 어떤 식으로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아버지가 마땅히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런가보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어 넘겼다.

1996년 2월 25일, 비가 오는데도 아버지는 평상시처럼 동생과 단체명상에 가겠다고 나서셨다. 그리고 차 안에서 고모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다. 명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호법이 우리 막내를 찾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고, 몇 명의 사저들이 아버지한테 인공호흡하는 걸 보았다. 난 다소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때 동생이 나를 옆으로 끌며 말했다. "이제야 왜 아빠가 3일 전에 스승님의 화신을 봤다고 하셨는지 알겠어. 스승님이 웃으시며 아버지한테 윙크를 하셨대."

구급차가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급히 신고 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난 다른 주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자 동생은 곧바로 명상을 했고, 몇 분 후에 나한테 전화를 했다. 동생은 수화기에 대고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다. "아버지는 방금 전에 돌아가셨어! 스승님이 아버지를 어머니께 데려 가신거야. 아버지는 너무나 젊어 보여서 마치 20대나 30대인 것 같았어. 아버지는 신바람이 나서 아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든 걸 둘러보셨어. 그곳에는 흥미로운 게 아주 많

다는 말씀을 줄곧 하셨지! 내가 우니까 스승님께서 나를 꾸짖으셨어.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날 위로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그냥 웃고만 계셨지.” 전화를 끊은 뒤 난 긴장한 탓에 다소 경직되었던 몸이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동생의 말이 옳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가 울어야 하지?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위엄 있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그러니 마땅히 아버지를 위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어떤 사람이 와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병원 규칙에 따르자면, 운명한 환자들은 세 시간 이내에 병실에서 옮겨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우리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여 8시간 동안 머물게 해주었고, 우리가 고인을 위해 명상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주기까지 했다. 모든 직원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고 다정했다. 8시간 후에 우리는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를 들었다. 응급실의 한 간호사였다. 그는 뭐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친절에 감사하자, 그는 나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게 신의 안배였다.

그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10여 년간 일해 왔는데,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방안으로 들어와 불그레하게 혈색이 돌고 웃음이 어려 있는 시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난 그에게 아버지의 손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손은 그때까지도 아주 부드럽고 유연했다. 난 그 간호사에게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와 같았고, 그래서 하루가 지난 뒤 시신을 옮길 때 사람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바닥에 떨어뜨린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그 간호사는 심성이 매우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병원 후문에서 관 옮기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떨어뜨리지 말고 주의해서 옮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우리가 떠날 때, 그는 내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승님이 이곳에 오시면 연락해 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스승님이 오셨고, 다행스럽게도 그 날 그는

비번이었다. 난 그에게 좀더 일찍 센터로 오라고 해서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해줬다. 입문할 시간이 가까웠을 때, 나는 그에게 입문이란 평생채식을 해야 하는 신성한 결단이니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이미 5년 전부터 채식을 해 오고 있었다. 그는 또 몇 년 전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명상을 배워 내적 평화를 얻고 싶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날 입문을 받고 스승님을 뵈었다.

1996년 5월, 우리는 다시 만났고, 나는 그에게 수행에 관해 별다른 궁금 사항이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영문 뉴스잡지와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테이프를 몇 개 빌려주었다. 그는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하면서 체힘도 매우 좋다고 했다. 그 뒤로는 각자 바쁘게 사느라 서로 연락도 못하고 지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그에게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뉴저지에 2개월간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서 빌려간 비디오테이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난 그것들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틀어 드리라고 권했다. 스승님이 그를 고향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말이다. 그는 감정에 복받쳐서 이 전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통화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1997년 1월에 그는 내게 다시 전화를 해서 1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도 우리 아버지처럼 웃으며 세상을 떠났는데, 고인의 혈색이 아주 좋고 시신이 매우 유연해서 가족들이 매우 놀랐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의 얘기로 돌아가자. 모든 친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을 토요일로 잡았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모두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금요일 날 밤, 우리는 함께 단체명상에 갔다. 명상 중에 화신 스승님이 여동생에게 나타나, 우리 아버지가 센터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수행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신사적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모든 동수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에 덧붙여 우리 동수들이 자신의 사랑과 단체명상에서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기쁘다고 하셨다.

명상이 끝났을 때 동수들은 자신의 공덕을 우리 아버지께 보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차례로 아버지께 쏟아지는 빛의 세례를 받으셨다. 이에 아버지는 매우 감사하며 이렇게 외치셨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간직하세요.” 스승님은 내 동생이 이 사실들을 전부 목격하게 하셨다.

장례식 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동수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모든 이들이 스승님의 불찬테이프를 들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때 동생은 벽에 걸려있던 스승님의 사진에서 축복의 빛이 발산되는 걸 보았다. 동생은 또 스승님의 화신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관 위에 앉히는 것도 보았다. 우리가 아버지께 절하며 안녕히 가시라고 하자 아버지도 우리에게 답례를 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동생에게 사형과 사자들이 해준 꽃 장식이 아주 예쁘다고 말씀하셨다. 관이 닫힐 때 질식되는 것 같은 두려운 느낌이 동생에게 엄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동생을 안심

시키며, “걱정 마라. 난 바깥에 있다”고 하셨다. 친지들 대부분이 자신이 여태까지 참석했던 장례식 가운데서는 이번 것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서 10여 년 전에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해야겠다. 어머니는 5년 전, 5세계에 올랐을 때 흰옷을 벗고 보살의 옷을 입으셨다. 어머니는 여동생이 명상할 때 자주 모습을 보이셨는데, 한 번은 동생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들, 내 아이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갔었다.” 우리 어머니는 여러 면에서 아주 독특한 분이셨다. 우리는 스승님을 만나기 전후로 해서 이처럼 많은 놀라운 일들로 큰 축복을 받았다. 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생에서 스승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 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스승님이 우리 모두를 이 생이 끝난 후에도 영원토록 돌봐주시실 것임을 굳게 확신한다. 🍵

휠체어여, 안녕

가오 사저/ 중국 대륙 산시

최 사저는 5살 때, 우연히 굴러 떨어져 심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본 결과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났다.

그 때부터 그가 간직했던 많은 꿈들과 삶은 빛을 잃어갔다. 그는 서지도 걷지도 못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심정도 찢어지는 듯 아팠다. 휠체어에서 지내야 했던 5년간, 또래 친구들이 즐겁게 학교 가는 걸 볼 때면 부러움의 눈물을 머금어야 했고, 갈수록 삶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잃었다.

그렇게 우울과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낼 때, 한 나이든 사저가 최 사저를 찾아와 스승님의 견본서를 전해 주었다.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 날부터 최 사저는 완전 채식을 시작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끝없는 축복이 마치 오랫동안 가물었던 사막에 단비를 내리듯 그의 영혼을 적셔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최 사저가 벽을 짚고 걷기 시작한 것이다. 95년 12월에 오랫동안 갈망하던 입문을 했다. 그리고 입문한 뒤로는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아주 신실하고 겸손하게 수행해 나갔으며, 얼마 안 가서 휠체어와 영원히 작별하고 자전거까지 배웠다.

몇 달 전, 몇몇 동수가 최 사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전에 등에 얹혀 입문하러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칭하이 엄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난 아마 살아 갈 자신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최 사저는 집에서 혼자 영어와 일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작문실력이 상당했다. 그는 스승님처럼 대중에게 봉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

스승님의 향기

어느 사저/ 중국대륙 광시

나는 1989년 9월 19일 차 사고를 당해 소뇌에 중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단층 촬영을 했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나왔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35일 동안, 난 눈을 감을 때마다 똑같은 모습을 한 불보살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명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난 꼭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원래는 뇌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단층 촬영을 해 본 결과 소뇌의 혈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여러 차례 수술을 미뤘다. 그 때 내 나이 51세였는데, 회복 속도가 20세의 청년보다 더 빨라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수술이 연기되는 바람에 살 가망이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위험한 수술을 피할 수 있었고, 아주 빨리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후각과 미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냄새도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목구멍에서 강한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다. 숨을 내쉴 때나 들이마실 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특히 향기가 강해서, 난 종종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향기를 즐기곤 했다. 하지만 어떤 향기인지 알 수는 없었다. 것처럼 강하고 독특한 평생 처음 맡아봤다. “완벽하다”는 말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향기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이었다. 그 향기는 처음 몇 달간 밤낮으로 끊이지 않더니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1991년 5, 6월에 마침내 사라졌다. 1994년에 다시 그 향기를 한 동안 맡았을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의 향기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어디서 나는 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1997년 5월에 입문을 하고서 다시 그 불가사의하고 독특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가슴과 입안에 서도 향기가 가득했다. 그 향기는 폐에서 나와 바로 골수로 들어갔으며, 1990년 초에 맡았던 그 향기와 꼭 같았다. 며칠 간 향기가 지속될 때도 있고 간간이 날 때

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향기가 안 나다가도 명상을 잘 하거나, 관음을 연달아 1시간 반 가량 하거나, 혹은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거나, 테이프를 듣거나, 책을 보면 다시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책장을 열자마자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저절로 그 향기가 나기도 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 목에선 그 향기가 가득하다. 난 입문 전에 맡았던 향기와 입문 후에 맡았던 향기가 똑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스승님의 향기이자 천상의 불보살의 향기인 것이다. 그것은 스승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상에서 온 불보살이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승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축복임을 나는 알고 있다.

입문 후 나는 뉴스잡지 합본집 제 1권을 읽고서 1989년 9월 중순에 스승님께서 중국대륙의 상해, 항주, 하문, 광주일대를 다니며 홍법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나는, 내가 스승님과 인연이 있다는 것과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화신 스승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 그 때 맡았던 향기가 입문 후에 맡았던 향기와 같았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내가 입문하기 7년 전에 이미 천상의 불보살의 향기를 통해 스승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연장자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칭하이 무상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1999. 11. 28. (원문 영어)

십대들은 다 자라고 나면 부모의 권위나 지혜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부모들이 항상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가집니다. 또 한 사람의 미숙한 인간을 이끌기에는 아직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제도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성장했을 때 자기 부모한테 실망합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권위를 내세워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의 주장이 늘 옳은 것만도 아니어서 때로는 그들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권위가 있으니 함부로 대들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늦게 태어났다고 꼭 지혜가 적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경험에 따르면, 부모들은 좀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부모가 자식을 길러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젊어서 기운이 넘칠 때 일찍 아이를 낳아 기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기운은 세도 아직은 충분히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연장자들의 지혜가 좀더 믿을 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선 나이가 들면 양로원으로 보내집니다. 사회와는 작별을 고하는 거죠! 그렇게 노인들은 양로원에 보내놓고 아직 어린 사람들이 아이를 기르느라고 고생을 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어려서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 젊은 부모들은 종종 화가 납니다.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다 얻지 못합니다. 젊은 부모들은 돈을 벌어 생활기반을 잡아야 하는 동시에 자식들도 길러야 하므로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나 아이들이나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돈을 벌고 아이들 키우는데 바빠 좀더 배울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 지혜와 연륜이 쌓이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아량이 있는 노인들은 이 사회에서 축출되어 자신들의 지혜를 썩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은 집안의 보배

칭하이 무상사/ 태국 방콕 1999. 12. 28. (원문 중국어)

오늘날에는 노인들이 모두 양로원으로 보내집니다. 대 지혜의 원천을 활용하지 않고 밖으로 내쫓다니 정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존경할 만한 노인들을 양로원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서 지혜와 경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유용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

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더 빨리 현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순진무구한 반면, 노인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성가시게 잔소리를 하거나 아이들을 너무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은 필요한 상황에서만 아이들에게 제한을 가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두죠. 노인들은 젊은 부모들 같진 않습니다. 그들은 잔소리가 심하고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곧잘 언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고 본인들은 밖에 나가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여전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나 연장자들을 당연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오래 살았죠. 오늘날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 점에 대해 좀더 배우게 될 겁니다.

조부모님과 나

링 가오 사저/ 미국 일리노이즈 시카고 (원문 영어)

나는 어렸을 때 약 10년 동안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나는 비로소 내 인생에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우리 조부모님은 천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분들이었지만, 나는 늘 할아버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다보면 마치 역사책을 읽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당신은 오늘밤 외로운가요(Are You Lonesome Tonight)’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다. 그 때 할아버지는 이미 여든이셨다. 할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져다 주셨다. 할아버지를 통해 나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일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조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면 늘 훈훈함과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분들의 방은 나의 안식처였다. 밖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슬픔이 가셨다. 신은 그분들을 통해 이 세상에선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과 어쨌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나는 너무 어려서 그분들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돌봐 드리지 못했다. 그분들에게 식탁을 차려 드리고 잠자리를 살피고 드리고 목욕을 시켜 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몫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직장 일과 집안 일로 너무 바쁜 탓에 그분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였다.

언제나 묵묵히 인내하시며 현명한 지혜를 보여주시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좀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난 연장자들이 우리 사회 최고의 보배라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반대로 육체적으로 노쇠해진 그들은 젊은이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이 신의 의도인가 보다.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고 옳은 방법으로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잊게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역량이 부족해 노인들 보살피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관음법문을 수행했더라면 같이 사실 때 더욱 조화롭고 유쾌하게 지내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장수의 비결


청하이 무상사/ 포모사 총리 1989. 2. 25. (원문 중국어)

한 의료팀이 장수의 비결을 대중들에게 알려 주려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젊고 순진해 보이는 외판 지역과 원시 부족을 여러 군데 방문했지요.

의료팀은 첫번째로 어느 잘 생긴 부족을 방문했는데, 그들 중 몇몇은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여전히 행복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혈색이 아주 좋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의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음과 행복을 유지하며 오래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경쟁이나 복잡한 상거래, 질투심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고, 너무 자극적이거나 달지 않은 소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 같은 것도 없었고 사탕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건강했지요. (난 들은 대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장수의 비결로 사탕이나 단 과자, 자극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 경쟁, 질투, 복잡한 사업 문제나 분쟁 등을 피하는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료팀은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 외에도 배우자와 육체 관계를 적게 가지는 것이 장수의 비결로 밝혀졌습니다. 둘 내지 세 명의 자녀를 둔 이후에는 육체 관계를 중단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축적해서 오래 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것도 리스트에 첨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세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주 번잡스럽고 시끄럽고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변화했으며,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주민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흰머리,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의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에게 비결을 묻자, 그는 매일 먹고 마시고 환락에 빠져서 산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담배도 피우고 고기도 먹으며 날마다 새 여자친구를 사귀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들은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와! 이건 새로운 사실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장수하려면 소박하게 먹고 청빈한 삶을 살며 성 관계를 적게 가져야 한다고 했던 기존의 얘기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곳은 모든 게 반대일까? 의사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신만이 그 이유를 아시겠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의사들은 그와 친해지려고 그를 술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그가 술을 물 마시듯 하자 의사들은 더욱 감탄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한 의사가 이렇게 물었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서른입니다.” 

멕시코

"La Fuente Vegetariana" (동수 경영)

주 소 : Julian Villagran #344 sur, Zona Centro, Monterrey, Nuevo Leon, Mexico

전화: 52-8-3451081, 52-8-3430867

영업 시간: 월 - 금 (8 AM - 8 PM)

포모사

유명 채식식당

(동수 경영; 출장 요리만 가능)

주소: 43-1 Hua Yuan, Kouping Tsun, Neime Hsiang, Kaohsiung County, Formosa

전화: 886-7-6602229 / 호출: 886-937-693016/


핸드폰: 886-939-297551



스승님의 건강 비결

칭하이 무상사/ 미국 텍사스 휴스턴 1993. 11. 13. (원문 영어)

나는 연약하고 때로 앓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한 편이죠. 내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정신력 때문입니다. 모든 지혜와 힘과 축복을 지니고 있는 최고 저장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체력과 편협한 두뇌를 사용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성의 보고를 사용해 일을 하므로 어떠한 갈등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쉽습니다.

명상을 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내적인 힘(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시다.)에 귀 기울이는 우리 관음 수행자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쉽고 편해집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제한된 육체에 의지해 일하지 않고 위대한 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유한한 컴퓨터 두뇌와 체력을 사용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가장 효율적인 힘을 저버리고 있는 거죠. 



칠십대 노인의 건강 비결

천 치아빈 사형 (72세) / 포모사 타이베이

1. 신체 운동

A) 태극권: 이 운동은 복싱이나 구기 종목과는 달리 힘의 사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힘을 빼는데 중점을 두는 특이한 운동이다. 실제로는 힘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와 동시에 태극권은 느린 동작을 강조한다. 동작이 느리면 느릴수록 좋다. 이런 형태의 운동은 몸의 여러 기능을 고루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 운동을 하면 심장, 폐, 간, 위장, 신장 등의 내장이 좋아진다. 태극권을 한 번 마치는 데는 25분이 걸리는데, 운동을 하고 난 뒤에도 호흡이나 맥박 수에 변함이 없다. 연이어 2, 3회를 반복해도 수련자들은 여전히 편안한 모습이다. 태극권은 심장 박동이나 호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운동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건강과 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

B) 수영: 물 속에서 하는 유산소운동인 수영은 과다체중이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

람들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안전하다. 물 속에서는 저항력, 부력, 압력이 있으므로 수영을 못 하는 사람들도 수중 에어로빅으로 불필요한 열량을 소모시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수영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자세를 교정하며 어깨와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물의 부력이 관절의 압박을 최소화시키므로 긴장을 푸는데도 좋다. 물 속에서 움직이는데 익숙해지면 더 이상 물을 겁내지 않게 되므로 조만간 수영도 할 수 있게 된다. 나도 일흔 두 살에 수영을 배웠다.

C) 걷기: 걷기 운동은 격렬하지 않은 운동이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국민운동이 되었다. 후유증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다른 운동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바르게 걷는 법은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면서 일정 리듬을 유지하며 걷는 것이다. 걷는 속도를 높이면 보폭을 늘


리지 말고 걷는 횟수를 늘려야 한다. 보폭을 무리하게 넓히면 무릎을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걷는 운동은 생리적이고 심리적으로 유익한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이완, 우울증 방지, 사물의 관찰력 증가, 체중 감소, 혈액 내의 유용한 콜레스테롤 증가, (골다공증 환자들의) 골절위험 감소, 고혈압 저하, 당뇨합병증 감소, 관절부위의 유연성 증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식생활

A) 절제된 식생활이 장수를 가져온다: 예로부터 오래 살고 싶으면,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라. 뛰지 말고 걸어라. 화내지 말라”고 했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중년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시기인 반면 노년은 퇴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고 육체적 피로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음식 섭취량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 건강의 최대 적인 과다체중이 되기 쉽다. 신체의 전 기능과 장기가 쇠약해지므로 음식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위장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일상 생활과 마찬가지로 음식 섭취에서도 중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음식을

알맞은 양만큼 먹어야 한다. 너무 과해도 좋지 않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과식하지 않아야 하며, 겨울에 몸을 너무 덥게 하지 말고 여름에 몸을 너무 차게 하지 말아야 한다.

B) 음식을 오래 씹는다: 침에는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한 입에 적어도 서른 번은 씹는 게 좋다. 그러면 침 속의 여러 효소가 활발히 작용하여 발암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그래서 옛 사람들도 음식을 천천히 씹어 삼키라고 했다.

C) 물을 많이 마신다: 배뇨작용이 건강에 중요하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서 배설시키는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물 마시는 것도 습관으로,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한번에 많은 양을 마셔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여하간 물은 신체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결장에서 흡수하는 양이 적어져 변비에 걸리기 쉽고, 소변이 뿌옇게 되어 비뇨기에 부담을 준다. 물은 몸 안의 독소를 희석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있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세 가지 독소배출작용, 즉 장운동 및 소변과 땀의 배출작용이 순조로워야 노인건강이 증진된다. 



녹차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 있다

미국 뉴스팀 보도 (원문 영어)

하루에 넉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면 암에 걸릴 위험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퍼듀(Purdue)대학의 연구원인 도로시와 제임스 모어가 녹차에서 발견된 EGCg란 성분이 녹차의 항암 효과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1999년 12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세포생물학협회 제38회 연례모임에서 발표했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EGCg란 성분이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효소 tNOX의 활성화를 억제시킨다고 한다. tNOX의 활동이 억제되면서 결국 암세포는 죽게 된다. 연구원들은 이 EGCg가 암세포는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에 덧붙여, 그들은 녹차 잎에 항암 물질 EGDg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녹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EGCg라는 성분이 암세포를 제거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하루에 넉잔 이상의 녹차를 마시면 암세포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억제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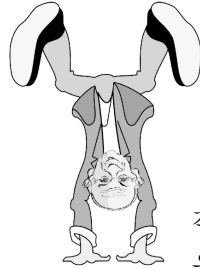
(정보출처: <http://www.purdue.edu/UNS/html4ever/9901.Morre.greentea.html>)



연로한 동수들과의 인터뷰

기록: 정 동화 사저/ 포모사 난토우 뉴스그룹

인생은 칠십부터



양 청운 사형은 올해 71세다. 6년 전 입문하기 전까지 그는 수행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이라곤 단지 신과 여러 신령에게 복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아들이 수행을 시작하자, 양 사형은 스승님의 견본서와 잡지를 읽으며 아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알고 채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후 센터를 방문한 그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동수들이 하나로 화합된 기운을 발산하는 것을 보고 관음가족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수행은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나이 들어 시작하면 신체가 약해서 처음 명상을 배울 때 무척 힘이 듭니다.” 양 사형은 또 이런 말도 했다. “당시만 해도 30분간 버티고 앉아있는 게 고작이었죠. 처음 1년간은 단지 그렇게 앉아있는 게 무슨 이로움이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어 믿음이 곧잘 흔들렸습니다.”


지금 양 사형은 건강해 보일 뿐 아니라 활력에 차 있고 신념이 굳다. 내면의 체험을 하고 심신이 크게 이완되었으며 예전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스승님의 교리를 성실히 공부한 것도 지혜를 계발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다.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먹거나 잠을 잔다. 물론 그는 스승님을 믿고 따르며 관음법문을 꾸준히 수행하는 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나이 들어 수행을 하면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양 사형은 짧박하게 자신의 좌우명을 읊는다. “나는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는다. 수행을 잘 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는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과식하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열렬한 사랑!

탕 사저 역시 올해 71세로 입문한지는 11년이 되었다. 아직까지도 그가 한 말이 내 맘속에서 계속 메아리친다. “우리는 쉼 없이 108도의 열렬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스승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의를 지혜안에 집중시키고 세속적인 것들은 몽땅 잘라내 버리고 어떤 난관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진보하는 방법입니다.”

탕 사저는, 수행이란 경전을 깊이 탐구하면서 스승이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는 아무 스승이나 무턱대고 따르지 않는 것이란 생

각을 갖고 있었다. 수행을 추구하며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자신이 찾던 빛은 끝내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한 신심으로 그는 마침내 스승님께 인도 되었고, 그 이후로는 스승님이 어디를 가시든 스승님을 따라다니며 세계 곳곳에서 홍법을 도왔다. 수행 초기에는 호된 시련도 많았다. 남편이 반대를 했고 친구와 친척들이 그의 믿음을 미신이라고 했다. 그러나 탕 사저가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성심으로 스승님을 따르자, 나중에는 남편도 스승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탄복하여 입문을 하였다. 스승님은 탕 사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돌봐주신다. 한 예로 탕 사저의 머느리는 입문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하늘에서 색깔의 꽃을 뿌리시는 스승님의 형상을 보고 심신의 안정을 얻었다.

탕 사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 게다가 벌써 목조 침대를 두 개나 완성했다. 그의 그런 노력이 전국으로 알려져 여러 사람의 찬사를 받았다. 탕 사저는 수행에 대한 열의와 불굴의 신념을 나타내는 무수한 체험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금언을 평소에 되씹곤 한다. “세속적인 사고의 굴레를 뛰어넘으려면 108도의 열정으로 스승님을 사랑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그의 조언은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에 약간의 식초를 치는 것이었다. 

당신의 TV프로그가 너무 좋아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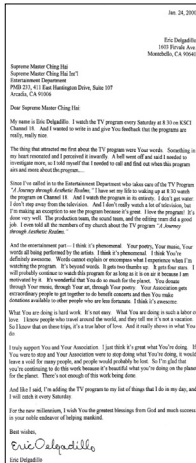
에릭 델가도로의 편지에서 발췌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께,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KSCI 채널 18에서 방영되는 프로 '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을 봅니다. 그 프로를 보고 당신께 편지를 써서 프로가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프로에서 다른 무엇보다 제 관심을 끈 것은 당신의 강연이었습니다. 당신의 강연을 듣자 내 맘속에서 뭔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내면으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를 재촉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가 방영될 때 전화를 해서 프로에 관해 좀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를 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부서에 전화를 한 이래로 아침 8시 반에 일어나 채널 18에서 방영되는 이 프로를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를 끝까지 다 봅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 법도 없고 한 시도 텔레비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TV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이 프로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프로가 너무 훌륭해서요. 저는 이 프로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팀, 음향팀, 편집팀 모두 대단히 훌륭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부 이 프로, '심미의 세계로 가는 여행'을 알려줬습니다.

연예부문에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들에 의해 공연된 당신의 시와 음악과 말씀 모두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를 볼 때 제가 경험한 것을 말로 설명 드리기 어렵군요. 그건 언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두 개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것으로도 모자라고, 별 다섯 개를 주는 것으로도 모자랍니다! 아마도 저는 프로가 방영되는 한은 이 프로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이 프로에 대단한 흥미를 느끼니까요. 당신이 이 행성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은 또 음악과 예술과 시를 통해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협회는 뛰어난 인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자선 음악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불행한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정말 경외로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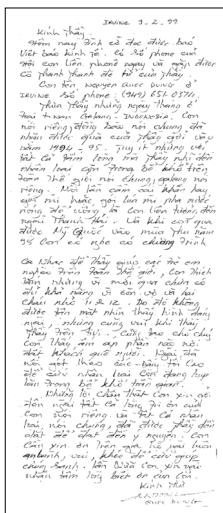
스승님이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셨어요

1999년 9월 2일 (원문 어눌락어)

스승님께,

제가 인도네시아 갈랑 난민캠프에서 지내던 지난 94년과 95년에 저를 포함한 그곳 거주자들이 스승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갈랑캠프에 있는 난민들과 나아가 고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인류를 향한 스승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건을 사용하거나 라면 한 그릇, 시리얼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전 스승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던 지난 1998년 가을, 스승님의 협회가 가난하고 병든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그 때 저는 아내와 두 어린아이들(큰애는 12살이고 작은애는 11살이었죠.)을 데리고 막 미국에 도착한 형편이라 콘서트에 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스승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스승님을 뵈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스승님의 프로그가 저희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스승님은 진정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하는 위대한 성인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스승님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바람을 성취하는 길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이 스승님께 평화와 건강과 행복을 허락하시어, 스승님께서 계속 중생제도를 펼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쿠옥 둥 드림.



칭하이 무상사 (원문 영어)

미국 캘리포니아 1989. 5. 27.

이곳 세상에서는 두뇌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축적된 정보인 선입견과 편견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천성을 잊게 하고 우리가 이러한 선입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타고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1992. 2. 23.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편견이 없고 온갖 무의미한 생각과 욕망,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바람이 없다는 것이며, 세상에 복무하고 진정한 지혜를 발현시키기 위해 내면으로 평온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브리즈번 1993. 3. 19.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1989. 5. 27.

에고를 없애는 길은 신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과 하나 될 때 '자기' 라는 게 사라집니다. 이처럼 간단한 일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소식

신년축하 전시회에서 불우이웃에게 스승님의 선물을 전하다




몬트리올 입문자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스승님의 선물을 나눠준다.

[몬트리올] 정월 23일 몬트리올 국회회관에서 음력설 경축행사가 열렸다.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몬트리올 센터도 이 행사에 참가해 전시대를 차렸다. 우리 전시대는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두 대의 대형 TV로 상영되는 스승님 강연비디오를 지켜봤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와 대화를 나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채식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스승님의 음악을 듣길 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스승님의 예술품과 디자인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고 싶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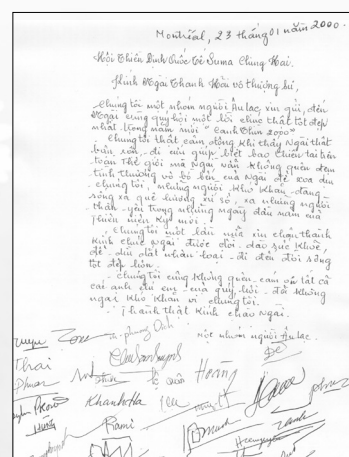
우리는 캐나다 총리 대리인이자 자유당 의원인 자크 사다 씨, 그리고 몬트리올 경찰청장 마쑥 사령관과도 대화를 나눴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부부동반으로

우리 전시대를 방문했다. 경찰청장은 한 사저에게 방편법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총리 대리인은 우리의 눈에서 빛나는 평온함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우리 전시대에서 퍼져 나오는 평온함에 이끌려 전시대를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와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전단을 하나 집어들며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뵙지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오후 4시, 우리는 혼자 사는 노인인 네 자녀 이상을 둔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스승님의 새해선물을 나누어주었다. 어울락인들, 중국인들, 서양인들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갔다. 우리 전시대에서 선물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이들의 웃음 속에서 기뻐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00년 음력설 행사와 불우한 이웃들에게 스승님의 선물 나눠주기 활동 지출 내역

항목	금액(캐나다달러)	영수증
전시대 경비: 렌트비용, 전시도구, 전기	\$600.00	A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선물: 쌀, 케이크, 과자, 연꽃사탕, 차, 음료	\$1,415.61	B
수건, 비누, 치약, 칫솔, 위생용품	\$691.27	C
지원금 (복돈)	\$1,200.00	
잡비: 사진복사, 연하장, 사진, 선물봉투	\$447.34	D
합계	CAN\$4,354.22 US\$3,002.91	
스승님의 기부금	US\$3,000.00	



스승님에게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이들의 감사편지

미국 소식

중부 어울락 수해 구호활동

1999년 11월 중부 어울락에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계 각국의 사형, 사저들이 스승님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 마음을 열고 104,576.88 미국달러를 모금하여 구호활동비로 보내주었다. 그런 다음 곧바로 지원자들이 어울락으로 건너가 이 돈을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또 한 차례의 대홍수가 어울락 중부지방 캄느가이와 독포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월 내내 홍수가 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몇 달이나 지속됐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의 동수들이 즉각적으로 이재민 돕기 자선모금을 다시 시작했다. 그 결과 25,964.00 미국달러가 모였다. 동수들은 이 돈을 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다시 어울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홍수 재난민들은 스승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음력설을 맞이할 수 있었다. 동수들이 방문한 곳은 캄느가이, 독포, 포투안, 포안, 포닌, 포빈, 포추웅, 캄트리, 캄남, 손하, 나트랑, 캄란, 판랑, 퀴논, 투이호아 지역과 독포 병원이었다. 동수들은 광란의 홍수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수백 가구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지원금을 전해 받은 피해자들은 매우 고마워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1 : 2000년 1월과 2월에 포모사에서 진행된 불우이웃 돕기 지출 내역

(단위: 대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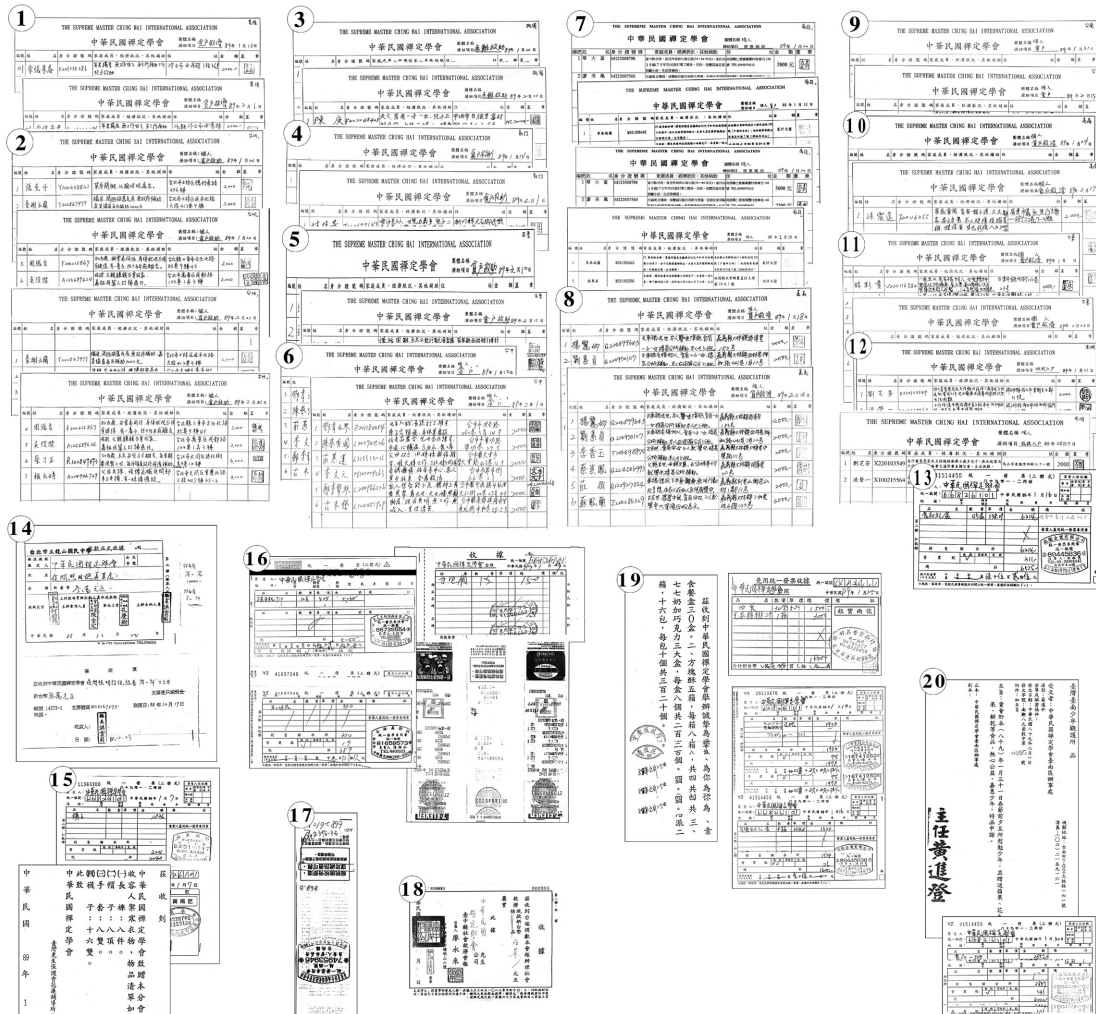
2000년 1월			2000년 2월			2000년 1월			2000년 2월		
장소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부록	장소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부록
기룡	1	2,000	1	2,000	1	치아이	6	13,000	6	13,000	8
타이베이	8	19,000	7	17,000	2	타이난	1	3,000	1	3,000	9
타오웬	2	4,000	2	4,000	3	카오슝과 핑통	3	7,000	3	7,000	10
신추	1	3,000	1	3,000	4	타이퉁	6	14,000	6	14,000	11
미아오리	2	6,000	3	9,000	5	평후	2	4,000	2	4,000	12
타이쑹	6	12,000	6	12,000	6	빈민가정 45가구에 새해선물 전달		6,525			13
난토우	8	29,200	8	29,200	7						
월별 소계	46	NT\$122,725	46	NT\$117,200							

2000년 1월에 포모사에서 진행된 자선활동 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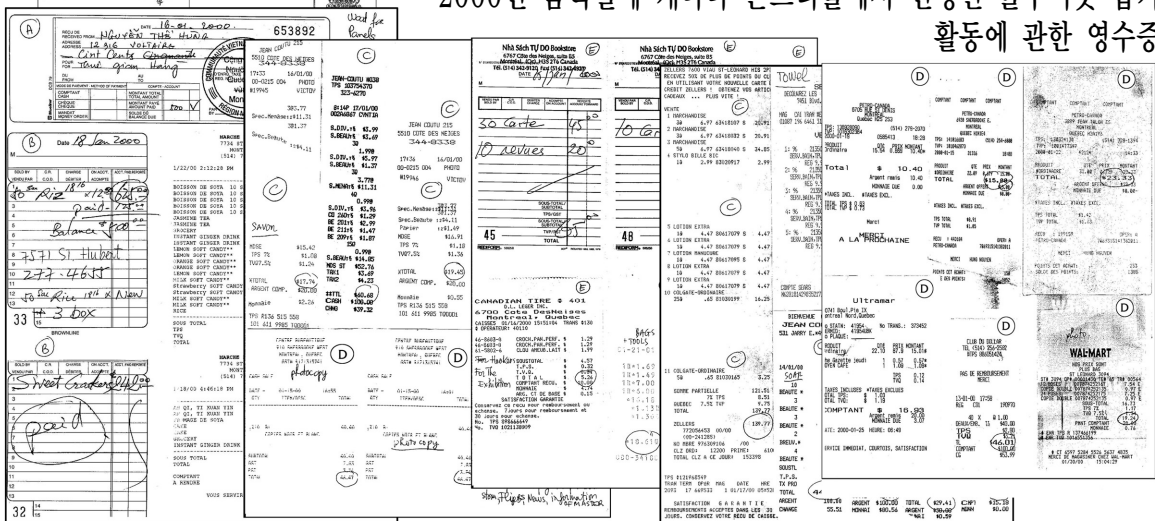
장소	일자	설명	금액	부록
타이베이	2000. 1. 1.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타이베이시립 통산중학교 가로등 보수작업 지원	20,000	14
화롄	2000. 1. 7.	타이완 갱생보호회 화롄지부 상담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구류자들에게 겨울 의복 제공	4,560	15
타이베이	2000. 1. 8.	국제 등반대회에서 무료검진 실시	6,568	16
타이난	2000. 1. 24.	타이난 밋테 개방교도소에서 영적 강연회 개최, 새해선물 제공	868	17
타이쑹	2000. 1. 25.	갑작스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구호금 지급	50,000	18
화롄	2000. 1. 25.	화롄 청소년 교도소 제조자들에게 선물 제공, 영적 강연회 개최	5,398	19
미아오리	2000. 1. 30.	시후 향(鄉)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자원봉사)	0	
타이난	2000. 1. 31.	타이난 청소년 교도소 제조자들에게 새해선물 제공, 영적 강연회 개최	3,000	20
합계			NT\$90,394	

2000년 1월과 2월에 포모사에서 펼친 자선활동 및 구호활동 지출 총액은 330,319 대만달러(10,655 미국달러에 상당함)이다.

2000년 1월과 2월에 포모사에서 진행된 자선활동 및 구호활동 영수증



2000년 음력설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불우이웃 돕기 활동에 관한 영수증





님

모두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님께 바침

지은이: 야양(夜陽)

찬란한 태양을 통하여
당신은 일체만물을 고루 비추시네
차별없는 평등함으로
두루두루 넉넉히 길러주시네

가이없는 하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은 끝없이 펼쳐지네
온 우주이신 당신의 숨결아래
만물은 사랑으로 가득 차네

쏟아지는 빗방울을 통하여
당신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루시네
우리 모두 완전한 하나가 되어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으리

사랑스러운 꽃들을 통하여
당신은 나의 생을 빛깔로 채우시네
놀라운 환희로
나의 삶 나의 세계를 찬란하게 바꾸시네

멋스러운 친구들을 통하여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되시네
고단하고 쓸쓸한 여정을 흘러온
희노애락의 추억 속에서조차

다사로운 어머니를 통하여
당신은 나를 돌보시네
생의 첫 울음에서부터
하염없이 이어지는 조건없는 사랑으로

살아계신 스승을 통하여
당신은 내게 길을 열어주셨네
영원히 당신과 하나되어
그 길 위에 머무르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당신에게 감사드릴 뿐이니
당신과, 당신의 사랑을 향하여,
소중한 인도와, 돌보아주심을 향하여,
늘 여여히 함께 하심을 향하여.....



전 세 계 관 음 웹 사 이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 중국어,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 중국어, SMCH 서점)
<http://www.Gods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kr> (한국: 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 일본어)
<http://www.geocities.com/Athens/Pantheon/3723/Godsdirectcontact.htm>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 영어, 중국어, 한국어, 어울락어)
<http://mason.gmu.edu/~lduan/Godsdirectcontact> (미국: 영어)
<http://members.tripod.com/~Godsdirectcontact/> (미국: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번체자, 간체자)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 영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 (미국: 영어)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 (미국: 어울락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음성, 영상지원)
<http://www.members.xoom.com/meditations/GodsDirectContact.html> (미국: 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 영어)
<http://www.com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 프랑스어)
<http://www.chinghai.cz> (체코: 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영어, 어울락어/ 음성지원)
<http://www.telecom.at/chinghai> (오스트리아: 독일어)
<http://members.xoom.com/ifaybish/Godsdirectcontact.html> (벨기에: 영어)
<http://ourworld.compuserve.com/homepages/quanyin> (영국: 영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lstennel (헝가리: 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 스웨덴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영어)
 (책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주문)
 뉴스그룹: lovesrc@Godsdirectcontact.org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온라인 웹 주소:
 중문 110호: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chinese/110/> (미국)
 영문 110호: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10/> (미국)
<http://www.Godsmediatecontact.net/news/news110/>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ews/english/110/>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index.htm> (포모사)
 어울락어 110호:
<http://www.Godsmediatecontact.net/aulac/n110/> (VNI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nu/news/110/> (VNU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iscii/news/110/> (VISCI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ni/news/110/> (VNI 활자)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vps/news/110/> (VPS 활자)
 스페인어:
<http://Godsdirectcontact.com/eNews/spanish/>
 일본어:
<http://www.Godsmediatecontact.org/kannon/news/newsindex.htm>
 프랑스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News/index.html>



무상예술

우주를 품은 빛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재질: 황금22K, 다이아몬드,
유색(有色) 보석

지고한 스승의 눈에서 영원한 사랑
의 메시지가 빛난다. 스승의 심오한
눈빛이 성스럽고 무한한 빛으로
온 우주를 품는다.

삼계의 왕

목걸이, 귀걸이, 반지
재질: 황금22K, 황보석

스승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사해탈을
약속하며 인과의 법칙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무상예술

창조의 무지개

지고한 스승의 무한한 빛이
창조의 무지개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이끌겠다는 신의 약속이다.

목걸이, 팔지, 귀걸이, 반지
재질: 황금22K, 다이아몬드, 유색(有色)보석

스승의 집

목걸이, 팔지,
귀걸이, 반지
재질: 황금22K,
다이아몬드,
유색(有色)보석

우리는 스승의 손에 이끌려 음류를 타고
저 우주로 높이 날아올라
모든 스승들의 집, 5세계로 간다.

무상예술



생명의 태양

생명의 빛은
수억 개의
태양 빛만큼이나 밝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재질: 황금22K,
다이아몬드,
황보석



천년 연화

목걸이, 팔찌, 반지
재질: 황금22K, 다이아몬드,
핑크루비[마다가스카르 산(産)]

황금시대에는 천엽연화(千葉蓮花)가 성인의 등급에
오르 영혼들을 스승들의 집으로 데리간다.



천년의 아름다움

청하이 무장사의 최신 디자인-
제 10세대 천상의 보석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자, 칼라 핀
재질: 황금22K, 에머랄드, 황보석

낙원으로
가는 다리

낙원으로 가는 다리는 천상과 지상의
연결고리이며, 감미로운
내면의 음류이고, 깨달은 스승의
약속이자 인도이다.